

Trends in Overseas Korean Studies Libraries

Number 8 (December 2012)



해외 한국학도서관 동향 보고서

제8호 (2012년 12월)



목 차

제 8 호

1. 하와이대학교 마노아캠퍼스 한국학과 한국학장서	양윤림	1
Korean Studies and Korea Collection at the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Jude Yang	14
2. 북유럽아시아학연구소 NIAS 도서관정보센터	페르 한센 · 게이크 헬게센	27
The NIAS Library and Information Centre at the Nordic Institute of Asian Studies, Copenhagen	Per Hansen · Geir Helgesen	33
3. 중국 국가도서관 한국어 문헌 사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왕유세	41
History, Present and Future of Korean Publications in the National Library of China	Yushi Wang	59
4. TOKSLIB 소식		81
TOKSLIB News		98

1

하와이대학교 마노아캠퍼스 한국학과 한국학장서

양 윤 립*

1. 서론

Maluna a'é o nā lāhui a pau ke ola ke kanaka. (인류는 국가에 우선한다)는 뜻의 이 하와이어는 바로 하와이대학교의 모토이다. 언어를 비롯하여 하와이는 미국 내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문화적, 지리적 특수성이 가장 강한 곳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런 하와이만의 역사적, 지리적인 독특한 문화 속에서 성장해 온 하와이대학교 마노아캠퍼스에 대한 설립 배경과 한국학센터와 해밀턴도서관의 한국학장서에 대한 역사와 소개를 하고자 한다.



그림 1 하와이주립대학교 마노아캠퍼스

* 하와이대학교 마노아캠퍼스 한국학사서

1.1. 역사와 배경

하와이주립대학교 마노아캠퍼스는 모릴법¹⁾의 시행에 따라 농업과 기계정비학 과정으로 1907년에 설립되었다. 그 이듬해, 호놀룰루 인근의 토마스 스퀘어에 위치한 임시 교정에서 존 길모어 총장을 비롯한 5명의 신입생, 5명의 예비학생, 그리고 13명의



그림 2 하와이대학교 동-서길(East-West Road)

임시직 교직원으로 정규 수업이 시작되었다. 1920년, 하와이주립대학교로 명칭을 바꾼 것을 시작으로 1930년대까지 꾸준한 성장을 거듭했는데, 아시아 태평양 연구의 부각으로 동-서 센터의 전신인 동양연구소가 1935년에 설립되기도 하였다. 1941년 12월, 진주만 공격과 함께 하와이도 세계 2차 대전을 경험했다. 수업이 두 달 동안 휴강되기도 하였으며, 가스 마스크를 착용한 학생과 교직원들은 교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고 한다. 1942년에는 일본계 학생들이 대학 자원봉사팀을 결성하기도 했으며, 그 중 다수는 나중에 442연대와 100보병대대에 합류하기도 했다.

하와이주립대학교 산하의 다른 캠퍼스들과 구분하기 위해 1972년, 대학 이름을 하와이주립대학교 마노아캠퍼스로 명명하였다. 하와이주립대학교 시스템은 총 10개의 캠퍼스로, 3개의 대학교와 7개의 커뮤니티 칼리지로 구성되어있으며, 그 중 마노아캠퍼스가 주력 캠퍼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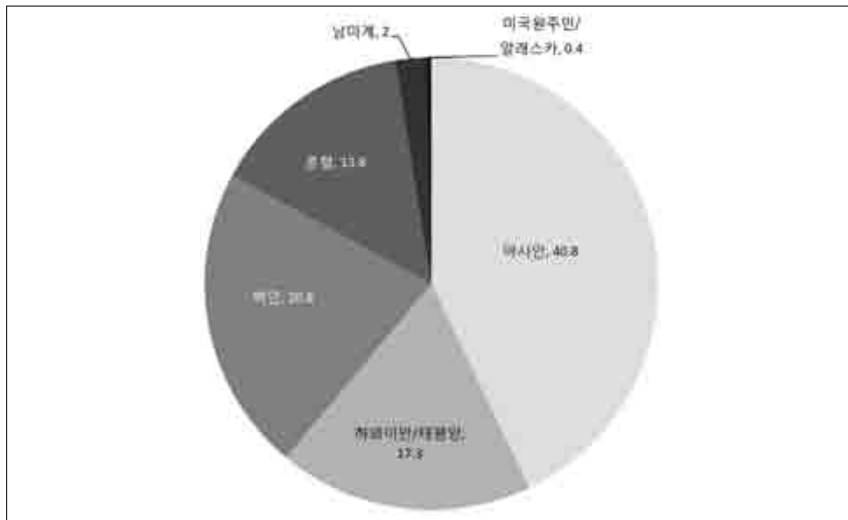
하와이주립대학교 시스템 산하 대학

- 하와이대학교 마노아캠퍼스
- 하와이대학교 힐로 캠퍼스
- 하와이대학교 서오아후 캠퍼스
- 하와이 커뮤니티 칼리지
- 호놀룰루 커뮤니티 칼리지
- 카피올라니 커뮤니티 칼리지
- 카우아이 커뮤니티 칼리지
- 리워드 커뮤니티 칼리지
- 마우이 커뮤니티 칼리지
- 윈워드 커뮤니티 칼리지

1) 모릴토지재단과대학법안(Morrill Land Grant Colleges Acts)

1.2. 소개

하와이대학교 마노아캠퍼스는 하와이주의 오아후 섬, 호놀룰루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마노아 밸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9개의 단과 대학과 9개의 대학원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중 윌리엄 법학대학원과 사이들러 경영대학원, 그리고 도서 정보 프로그램은 각종 대학원 평가에서 상위권에 랭킹되며, 그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다. 현재 하와이대학교 마노아 캠퍼스에는 1,229명의 정규직 교수와 연구진들, 그리고 20,429명의 학생들이 연구와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동양인 학생과 하와이 원주민, 그리고 다른 태평양 도서 출신의 학생이 전체 학생의 60%에 가깝다는 사실이다.²⁾



하와이의 전통과 미국의 영향, 그리고 한국과 일본, 중국, 필리핀 등의 하와이 이민역사에서 비롯된 다양성과 그 다양성에서 찾을 수 있는 하와이만의 문화. 그것이 하와이대학교만의 특징이자 100년이 넘는 역사를 통해 꾸준히 발전해갈 수 있는 뿌리일 것이다.

2. 하와이대학교의 한국학

2.1. 한국학센터

하와이대학교의 한국학센터는 대학 내의 각 다른 과의 한국학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2) <http://manoa.hawaii.edu/about/> 참조

하와이대학교의 한국학 연구 자원을 개발, 지원한다는 이념 아래 1972년에 공식적으로 설립됐다. 하와이대학교의 한국학센터는 해외에 있는 한국학센터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며 또한 미국 내 최고의 한국학 연구 교육기관으로 대학 내 도서관 시스템뿐 아니라 다른 대학 연구 시설의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현재 40여 명의 한국학 관련 교수진들이 센터의 일원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센터에서는 학술 컨퍼런스와 세미나 개최, 지역주민을 위한 시민강좌 개설, 장학금 지원, 한국영화 시리즈 상영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3 한국학센터

하와이대학교 마노아캠퍼스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교내 여러 건물들 사이에서 단연 눈에 띄는 한국 전통 양식의 건물을 지나칠 수 없을 것이다. 한국학센터 건물은 경복궁의 근정전을 모델로 설계되었는데, 1974년 7월1일에 첫 삽을 떠 1979년 12월에 완공되었다. 두 개의 층으로 구성된 이 건물 안에는 다양한 한국 예술작품과 전통가구들이 소장되어 있으며, 사무실, 회의실, 교실, 강당, 그리고 작은 규모의 도서관이 있다.

2.2. 한국학 프로그램³⁾

1903년 1월, 102명의 한국인이 사탕수수밭 노동자로서 하와이에 첫발을 내딛음으로써 하와이의 한인 이민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로부터 40여 년 후인 1946년에 하와이대학교

3) 한국어 프로그램과 다른 학과 프로그램의 수강생 수 등의 자료는 하와이대학교 동아시아어학과 손호민 교수의 “Evolution of the Korean Program at the UHM”을 참고하였다. 이 기사는 출판 예정인 “Narrative History of Korean Programs in U.S. Colleges and Universities”에 실릴 예정이다.

에서 처음으로 박관두에 의해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었다. 그 후 1960년, 동-서센터 (East-West Center)의 설립은 대학 내의 다른 아시아학과 더불어 한국학 성장의 발판이 되었다. 그리고 1980년에 아시아태평양학센터 아래 공식적인 한국학 교과과정이 개설되었다.

하와이대학교의 한국학 프로그램 중에서 한국어 프로그램은 오래된 역사와 큰 규모를 자랑하지만 무엇보다도,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일본어는 1921년에, 중국어는 1922년에 첫 강좌가 개설되었고, 일본어, 중국어 학사 과정은 1942년에, 석사 과정은 1968년에 시작되었다. 반면, 한국어는 1946년에 첫 강좌가 개설된 이래 1995년에서야 학사 과정이 개설되었고, 석사과정의 경우도 일본어나 중국어에 비해 20여 년이나 늦은 1987년에 개설되었다. 1946-1947학년도의 수강생 수를 비교해보면, 일본어를 수강한 학생 수는 583명, 중국어 수강생은 135명인데 반해, 한국어 수강생 수는 17명에 불과했다. 첫 강좌 개설된 지 10년 후의 수강생 수를 살펴보아도 일본어 수강생 512명, 중국어 수강생 40명, 그리고 한국어 수강생은 23명으로 눈에 띄는 변화는 살펴볼 수 없다.

그러나 2003년 이후 각 프로그램의 수강생 수를 조사한 통계를 보면 2003-2004학년도 일본어 수강생 수는 2,531명, 중국어 수강생 수는 641명에서 2011-2012학년도에는 일본어 수강생 수는 2,459명으로 오히려 조금 줄었고 중국어의 경우 855명으로 조금 늘었다. 한국어의 경우, 2003-2004학년도 수강생은 모두 368명으로 세 프로그램 중 가장 학생 수가 적었으나 2011-2012학년도에는 총 한국어 수강생 수가 1,051명으로 무려 약 300%의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래는 2012학년도 가을학기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대학원 과정의 수강생 수를 정리한 표이다.

학위	일본		중국어		한국어	
	어학/언어학	문학	어학/언어학	문학	어학/언어학	문학
석사	13	7	2	2	18	1
박사	14	8	6	2	25	3
합계	27	15	8	4	43	4

이와 같이 일본어나 중국어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를 가졌음에도 놀라운 성장을 해올 수 있었던 데는 손호민, 김영희 교수를 비롯한 많은 한국어/문학 교수들의 꾸준한 헌신과 열정, 그리고 한국학에 대한 학생들의 높아진 관심이 뒷받침되었을 것이다.

3. 마노아캠퍼스 도서관

하와이대학교 도서관은 1907년 마노아캠퍼스에 설립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하와이대학교 전체 시스템에 속한 10개의 캠퍼스에 있는 도서관, 그리고 각 단과대학과 개별학과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20여 개의 도서관 중 연구 장서로서의 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마노아캠퍼스의 해밀턴도서관과 싱클레어도서관이다.

하와이대학교 도서관

- Center for Labor Education and Research (CLEAR) library at UH West O'ahu
 - The Curriculum Research Center (CRC), UH Manoa
 - Hamilton Library, UH Manoa
 - Health Sciences Library of the John A. Burns School of Medicine
 - Honolulu Community College
 - Industrial Relations Center, UH Manoa
 - Institute for Astronomy, UH Manoa
 - Kaua'i Community College Library
 - Kap'iolani Community College Library
 - Leeward Community College Library
 - Maui College Library
 - Pacific Regional Planetary Data Center, UH Manoa
 - Richardson School of Law, UH Manoa
 - School of Ocean and Earth Science and Technology, UH Manoa
 - The Second Language Studies(SLS)/Linguistics Reading Room, UH Manoa
 - Sinclair Library, UH Manoa
 - Travel Industry Management Sunset Reference Center, UH Manoa
 - University of Hawaii at Hilo
 - University of Hawaii at Hilo Hawaii Business Research Library
 - University of Hawaii Center - West Hawaii
 - University of Hawaii West O'ahu Library
 - Windward Community College Library
-

마노아캠퍼스 도서관에는 현재 50여 명의 사서와 80여 명의 직원, 전문가, 그리고 다수의 근로 학생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0년도 보고서에 따른 통계⁴⁾는 다음과 같다.

4) <http://library.manoa.hawaii.edu/about/2010AnnualHighlights.pdf>

마노아캠퍼스 도서관 통계	
보유장서	3,428,159책
전자책	186,467책
구독중인 정기간행물	9,319종
구독중인 정기간행물 (전자)	30,689종
음향, 시청각 자료	76,873점
마이크로필름	2,332,237건
참고봉사	63,739건
자료대출	371,412건

해밀턴도서관에는 경영·인문·사회과 학부, 과학기술부, 아시아장서부, 하와이 태평양장서부, 정부간행물과 지도부, 특수 장서부, 대학기록문서와 원고부 등과 함께 각종 업무를 담당하는 10여 개의 부서가 있다.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는 하와이 보이저(영어입력)전자목록시스템(Hawaii's Voyager Catalog System)을 통해서 검색이 가능하며 다양한 주제별 검색 안내가 도서관 이용 안내 웹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자료의 전자화가 늘고 있는 추세에 맞춰 하와이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하와이만의 독특한 문화와 역사적인 자료들을 전자화해오고 있는데, 하와이합병에 관한 문서, 제2차 세계대전과 하와이에 관한 기록물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림 4 해밀턴도서관

해밀턴도서관은 2004년 한 차례 큰 고비를 맞기도 하였다. 2004년 10월 30일, 폭우에 불어난 마노아 개울물이 늘어나 대학 캠퍼스에까지 밀려왔고, 해밀턴도서관 지하도 홍수에 잠기는 참사가 발생했던 것이다. 당시 지하에서 수업 중이던 문헌정보학과 대학원생들이 유리창을 깨고 탈출했다고 하니 얼마나 급박했던 상황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손 쓸 틈 없이 밀려온 홍수에 9만여 종의 지도와 수많은 문서와 사진, 자료들, 목록 작업을 기다리고 있던 장서들이 피해를 입었고 해밀턴도서관 지하층 전체는 복구를 위해 문을 닫게 되었다. 다른 도서관의 지원과 사서, 직원들은 물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애쓰

결과 2010년 8월, 새롭게 단장한 지하층이 문을 열어 수서부와 목록부 등을 비롯한 부서들과 문헌정보학과가 다시 자리를 찾아갔다. 그러나 아직도 상당량의 자료들은 보존부에서 복구 작업 중에 있다.



그림 5 복구된 해밀턴도서관 지하

싱클레어도서관에는 음악 장서와 시청각센터가 있어 원하는 시청각 자료를 대출하거나 센터 안에서 시청할 수 있다. 특히 싱클레어도서관에서 학생취업정보센터(Student Success Center)를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학업이나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는 열람실과 회의실도 위치해 있다. 해밀턴도서관의 소장 자료 증가로 인해 공간이 부족하게 되어 현재 1980년대에 간행된 연속간행물은 싱클레어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4. 한국학장서

4.1. 아시아장서

해밀턴도서관의 아시아장서는 하와이주와 태평양 지역 내에서 아시아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서이다. 1920년, 하와이대학교에서 일본학과가 설립된 것을 시작으로 1930년에는 중국학, 인도학, 그리고 일본학에 중점을 둔 동

양학센터가 문을 열었다. 그 후 1962년에 동-서센터가 설립되면서 동양도서관에서 한국과 동남아시아들의 여러 나라의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 후 1970년, 아시아 장서가 하와이대학교의 도서관으로 이관되면서 하와이대학교의 독특한 장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아시아학은 하와이대학교의 중점 교과 과정으로, 아시아장서는 대학의 연구와 교과 과정을 지원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아시아장서에는 동남아시아학 전문사서 출신의 부서장을 비롯하여 한국,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전문 사서가 한 명씩 있으며 필리핀 장서는 반일 근무자인 필리핀 사서가 담당하고 있다. 또한 두 명의 보조 직원과 근로 학생들이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아시아장서부에서는 현재 24여 개국, 17가지 언어로 된 자료들을 수서하고 있다.



그림 6 아시아장서 열람실

4.2. 한국학장서

하와이대학교의 한국학장서는 1938년, 하와이의 한인 의사였던 양유찬 박사가 그의 아내를 추모하기 위해 희귀장서들을 기증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양유찬 장서는 현재 한국 특별장서로 분류되어 소장되고 있다. 그 후 1943년, 재미동포협회(Korean American Cultural Association)가 도서를 기증했는데, 1939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설립된 이 협회는 ‘미국 대학교에 한국학장서를 세우자’는 목표 아래 미국 대학에 한국 책을 기증하자는 신문광고를 한국어 신문에 내기도 했다고 한다. 하와이대학교에 기증을 시작한 다음 해

인 1944년에는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워싱턴 D.C.에 소재한 아메리칸대학교, 그리고 시카고대학교에 한국학장서를 구축하기 위한 유사한 기증을 하기도 했다. 하와이대학교의 당시 총장이었던 그레그 싱클레어가 1940년대 초, 이 협회의 도서관위원회의 회장에 선출되었던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성원과 노력 끝에 1960년에 들어서면서부터 한국학장서는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다. 한국학센터로부터 지원을 받아 반일제 담당자들이 한국학장서를 관리하다가 1992년에 전경미 박사가 첫 한국학 전문 사서로서 근무를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하와이대학교의 한국학장서가 성장하기 시작했다. 1964년 3천여 권이었던 장서가 2011년에는 6만 7천여 권으로 늘어났으며, 북미지역에서 9번째 큰 장서로 발전하였다.

하와이대학교의 한국학장서는 다양한 분야의 한국학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어학, 역사, 문학, 사회학 등 하와이대학교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의 장서들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근래 들어 관심과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북한 자료와 영화, 미디어 자료들의 개발을 오래전부터 꾸준히 해오고 있다. 영화 자료의 경우, 2007년 영화진흥위원회(Korean Film Council)에서 진행했던 해외 한국영화 연구자 육성 및 활성화 프로그램인 허브라이브러리 프로그램(The Hub-library Support Program for Korean Film Studies)에 선정되어 각종 한국영화 DVD와 관련 서적들을 지원받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하와이주립대학교의 한국학장서는 1994년부터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이 지원하는 북미한국학장서컨소시엄(Korean Collection Consortium of North America)의 회원으로서 특화된 장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담당주제는 다음과 같다.

- 1392년까지의 한국 역사
- 도시 계획
- 전통 음악
- 공공 보건
- 건축
- 현대 사회
- 제주지역에 관한/에서 발간된 자료
- 유럽지역에서 발간된 한국학 관련 자료
- 하와이지역에서 발간된 한국학 관련 자료

또한 미국의 국가연구센터(National Research Center)로부터 일본장서, 중국장서와 함께 같은 기금을 지원받아 한·중·일 공동 자료의 개발을 하고 있는데 특히 한국 내 이슬람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아시아장서에는 중요한 고서적들과 희귀자료들을 따로 보관, 관리하는 특별장서(Special Collection)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 일본, 중국의 중요한 자료들이 이곳에서 폐가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삼강오륜도나 동의보감 등의 고서적들도 이 특별장서에 속해있는데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장서가 소장하고 있는 고서적들의 목록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구축한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Korean Old and Rare Collection Information System)에 등재 작업 중이며 목록집 또한 제작 중에 있다. 목록집이 출판, 배포되면 많은 고전적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 외에 대표적인 특별장서로는 총 429권의 조선총독부 중추원 조사부 조사결과집(Inventory List of Chosŏn Ch'ongdokpu Chunch'uwŏn), 한국어학자 마샬 필 교수가 기증한 고서들인 마샬 필 장서(Marshall Pihl Collection) 등이 있다.



그림 7 아시아특수장서실

4.3. 한국학장서의 이용

하와이대학교의 도서관시스템은 온라인 목록인 보이저(Voyager Online Catalog)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도서관에 소장된 모든 한국학 자료 또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검색이 가능하며 국제 종합 목록인 OCLC WorldCat을 통한 자료 검색, 그리고 협력 대학이나 기관간의 상호대차 서비스 또한 가능하다. 한국학장서에서는 다양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스들 또한 구독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들은 다음과 같다.

- 한국학 데이터베이스(E-Korean Studies Database)
- KISS
- DBpia
- RISS International
- 조선언론정보기지(KPM)

또한 동아일보 아카이브, 조선일보 아카이브도 구독중이며, 국회도서관과의 상호협력 프로그램을 체결, 국회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을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다.

한국학사서는 한국학장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참고봉사 이외에 아시아장서의 참고봉사도 일정 시간 담당하고 있으며 북미한국학장서컨소시엄이 제공하고 있는 “한국학 사서에게 물어보세요!(Ask a Korean Librarian!)” 서비스에도 참여하고 있다. 하와이대학교의 한국학 연구자, 교수,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참고봉사를 이메일, 면담 등을 통해 하고 있으며, 매 학기마다 한국학 관련 수업에 들어가 도서관 이용법과 한국학자료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용방법을 강의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가이드(Library Guides) 페이지를 통해 한국학장서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이용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8 한국학장서 라이브러리 가이드 페이지

또한 다양한 전시회를 열어 한국학장서에 대한 홍보와 전시 주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 2010년 하와이국제영화제 기간에는 한국영화를 주제로 한 전시회를, 그리고 2011년에는 한글날에 맞춰 훈민정음에 대한 전시회를 갖기도 했다.

4.4. 한국학장서의 미래

한국학장서를 개발하고자 할 때, 주(state)의 재정 상태에 따라 대학교의 예산이 결정되고, 또 그에 따라 도서관의 예산이 정해지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장서개발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 보다 특화된 장서개발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과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앞으로 특수 장서들의 보존처리 등에도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며 목록부서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한국학자료의 목록화 작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시키도록 할 것이다. 또한 북한 관련 자료, 영화자료, 그리고 영어로 번역된 문학 작품 등을 중점적으로 꾸준히 개발해 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연구기관들과 도서관, 그리고 미국 내의 다양한 한국학 관련 기관들과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장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하와이는 오랜 한인 이민 역사를 바탕으로 한국문화가 한편으로는 독립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다른 다양한 문화들과 융화되며 유지되어 왔으며 한류를 기반으로 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은 이제 한국학에 대한 관심과 기대로 넓혀졌다.

동과 서를 이어주고, 한국과 세계를 이어주는 한국학의 중심에 하와이대학교의 한국학장서가 그 몫을 다하길 기대한다.

1

Korean Studies and Korea Collection at the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Jude Yang*

1. Introduction

“Maluna a’e o nā lāhui a pau ke ola ke kanaka”, Hawaiian for “Above all nations is humanity” is the motto of the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Originating with its language, when comparing Hawaii with other areas of the United States, it can be said that Hawaii is a culturally distinct and peculiar geographical region. The uniqueness of this land has given rise to a Korea Collection found nowhere else. This paper will discuss the establishment and growth of the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campus and the history of Hamilton Library's Korean Collection.



Fig 1 The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Campus

* Korea Studies Librarian,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1.1. Historical background

Under the Morrill Act¹⁾ in 1907, the College of Hawaii was established as an agriculture and mechanical arts college. The following year President John Gilmore with 5 freshmen, 5 preparatory students, and 13 faculty began to hold regular classes on a temporary campus in the vicinity of Honolulu's



Fig 2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East–West Road

Thomas Square. Renamed the University of Hawaii, from 1920 to 1930 the University experienced steady growth. With a focus on Asian and Pacific studies, the predecessor of the East-West Center, the Oriental Institute, was established in 1935. In December of 1941, Hawaii experienced World War II with the attack on Pearl Harbor. Classes were suspended for 2 months and it was a common occurrence to see students and faculty wearing gas masks on campus. In 1942 students of Japanese descent organized a volunteer team, several joining the 442nd Regiments and the 100th Infantry Battalion.

In order to distinguish the University's campuses, the campus was named the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In total the University of Hawaii System consists of 10 campuses, 3 of which are universities and 7 community colleges. The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campus is the central camp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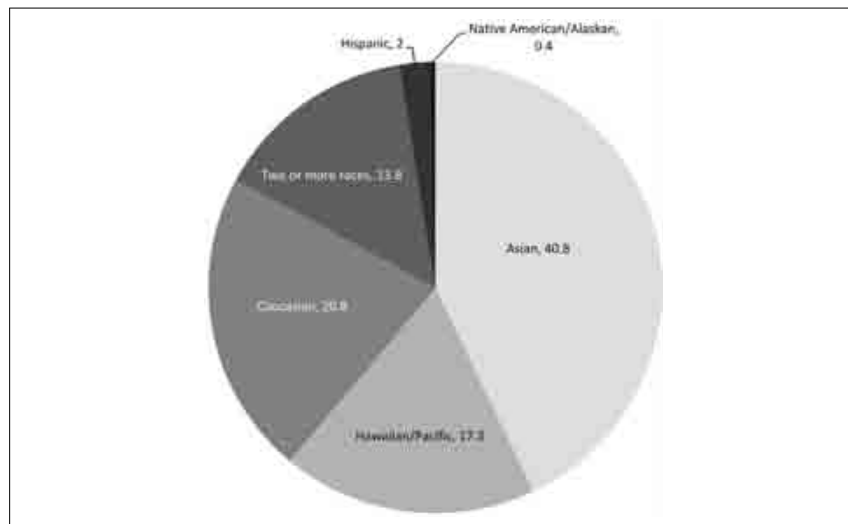
University of Hawaii System

-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 University of Hawaii at Hilo
- University of Hawaii at West O'ahu
- Hawaii Community College
- Honolulu Community College
- Kapiolani Community College
- Kauai Community College
- Leeward Community College
- Maui Community College
- Windward Community College

1) Morrill Land Grant Colleges Acts

1.2. Introduction

The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campus is on the island of Oahu and is located in Manoa Valley, an area slightly removed from the downtown district of Honolulu. It consists of 9 colleges and 9 graduate schools, of which the William S. Richardson School of Law, Shidler College of Business, and the Library Science Program's high rankings show the excellence of the University. Currently there are 1,229 full-time faculty and researchers and 20,429 students enrolled in the University. What is significant about the student population is that almost 60% is of native Hawaiian, Asian, or Pacific Island descent.²⁾



Hawaii's unique diversity is derived from its culture, the historical influence of the United States, and immigration from Korea, Japan, China, and the Philippines. That is the very root of the University of Hawaii's 100 plus years of history and part of what makes it special.

2. The University of Hawaii and Korean Studies

2.1. Center for Korean Studies

Due to the support and commitment of the professors of Korean Studies and various related

2) <http://manoa.hawaii.edu/about/>

fields,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was officially established in 1972.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is the largest of its kind in Hawaii and the best in the country, contributing to not only the University's library but also other universities.

Currently there are 40 professors related to Korean Studies who are members of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which holds various functions including conferences, seminars, community lectures, and a Korean film series as well as offering scholarships for the study of Korea-related fields.



Fig 3 Center for Korean Studies

One of the most noticeable buildings on the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Campus is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Modeled after Kyōngbok Palace's Kūnjōngjōn, construction began on July 1, 1974 and was completed in December 1979. It is composed of two floors and contains various works of Korean art and traditional furniture. There is also an office, meeting room, classroom, auditorium, and a small library.

2.2. Korean Studies Program³⁾

In 1903, the first Koreans arrived on Hawaii's shores to work in the sugarcane fields. Thus, the history of Korean immigration in Hawaii began. Around 40 years later in 1946, thanks to

3) Thanks to Prof. Son, Ho-Min at the Department of East Asian Language & Literature at the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to offer references on history and data of the Korean program at the University of Hawaii. His chapter, "Evolution of the Korean Program at the UHM" will be part of the book, "Narrative History of Korean Programs in U.S. Colleges and Universities", which will be published in 2013.

Kwan-tu Park, the first Korean language course was opened. In 1960, the establishment of the East-West Center served as a steppingstone for the growth of Asian Studies and Korean Studies within the University. In 1980 under the Center for Asia and Pacific Studies, the Korean Studies program was officially established.

The University of Hawaii's Korean Program is known for its long history and large scale. However, the most noteworthy thing about the program is its continual growth. The first Japanese language class was opened in 1921 and Chinese in 1922. Bachelor of Arts programs for both Chinese and Japanese were established in 1942. Master of Arts programs were established in 1968. However Korean language classes did not begin until 1946 and it wasn't until 1995 that the Bachelor of Arts program was established. The Master of Arts program in Korean was founded in 1987, almost 20 years behind that of the Japanese and Chinese programs.

Comparing the number of students in Asian language programs from 1946 to 1947, there were 583 students taking Japanese and 135 students taking Chinese. Only 17 students were enrolled in Korean classes. Ten years after the first Korean class was opened there were few changes to these numbers; 512 students were enrolled in Japanese, 40 in Chinese, and 23 in Korean.

However after 2003 things began to change. The statistics from 2003 to 2004 show 2,531 students enrolled in Japanese and 641 in Chinese. From 2011 to 2012 2,459 students enrolled in Japanese and 855 students in Chinese, illustrating a small decline in Japanese and a gain in Chinese. In the case of Korean, from 2003 to 2004 there were only 368 students enrolled in Korean classes, the smallest out of the three programs. However, from 2011 to 2012 over 1,051 students were enrolled in Korean classes exhibiting an approximate 300 percent growth.

Below is a chart that includes the numbers of enrolled students in Japanese, Chinese, and Korean graduate programs for the fall semester of 2012.

Degree	Japanese		Chinese		Korean	
	Lang./Lin.	Lit.	Lang./Lin.	Lit.	Lang./Lin.	Lit.
M,A	13	7	2	2	18	1
Ph,D	14	8	6	2	25	3
Total	27	15	8	4	43	4

Due to the support of professors like Sohn Ho-min and Kim Yung-hee, who are dedicated and show passion for their subjects, in conjunction with the growing interest in Korean studies by students, the Korean program was able to experience surprising growth in a relatively short amount of time in comparison to its counterparts.

3. Manoa Campus Library

The College of Hawaii built a library on the Manoa campus in 1907. On the University of Hawaii's 10 campuses, there are a total of 20 libraries that operate independently from one another. Of these, the Manoa Campus' Sinclair Library and Hamilton Library are the main research libraries. On the Manoa Campus there are currently 50 librarians, 80 staff and specialists, and many student workers and volunteers that provide service at the libraries. In the 2010 annual report⁴⁾ the statistics were as shown below.

University of Hawaii Libraries

- Center for Labor Education and Research (CLEAR) library at UH West O'ahu
 - The Curriculum Research Center (CRC), UH Manoa
 - Hamilton Library, UH Manoa
 - Health Sciences Library of the John A. Burns School of Medicine
 - Honolulu Community College
 - Industrial Relations Center, UH Manoa
 - Institute for Astronomy, UH Manoa
 - Kaua'i Community College Library
 - Kap'iolani Community College Library
 - Leeward Community College Library
 - Maui College Library
 - Pacific Regional Planetary Data Center, UH Manoa
 - Richardson School of Law, UH Manoa
 - School of Ocean and Earth Science and Technology, UH Manoa
 - The second Language Studies(SLS)/Linguistics Reading Room, UH Manoa
 - Sinclair Library, UH Manoa
 - Travel Industry Management Sunset Reference Center, UH Manoa
 - University of Hawaii at Hilo
 - University of Hawaii at Hilo Hawaii Business Research Library
 - University of Hawaii Center - West Hawaii
 - University of Hawaii West O'ahu Library
 - Windward Community College Library
-

4) <http://library.manoa.hawaii.edu/about/2010AnnualHighlights.pdf>

Statistics of Univ. of Hawaii at Monoa Library	
Print Volumes	3,428,159 volumes
Electronic Books	186,467 volumes
Serial Titles Currently purchased	9,319 titles
Electronic Serial Titles Currently purchased	30,689 titles
A/V	76,873 items
Microform	2,332,237 units
Number of Information Transactions	63,739
Number of Interlibrary Loan	371,412

There are 10 departments in the Hamilton Library that handle the Busines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Reference Department, the Asia Collection, Hawaii Pacific Island Collection, Government Documents, Special Research Collections, and University Archives. The entire inventory of materials is available on Hawaii's Voyager Catalog system. The system is searchable by topic through the website's library guide. Following the growing trend of digital materials, the University of Hawaii is in the process of creating electronic files of its collection, especially in regards to materials.



Fig 4 Hamilton Library

In 2004, Hamilton Library faced a large crisis. On October 30, 2004 heavy showers and thunderstorms caused Manoa Stream to overflow leading to flooding on the Manoa Campus and the flooding of the basement of Hamilton Library. The situation was so serious that

graduate students who were having class in the basement of the library at the time were forced to break windows in order to escape. In no time, the flood had damaged over 90,000 maps, books, photos, documents, and other inventory that was in the process of being inventoried and the library was forced to close the basement for restoration. With the help of donations from other libraries, librarians, and many volunteers, the restoration was completed in August 2010 and various departments such as the Acquisition Department and Cataloging Department as well as the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tudies were able to regain their footing. However, there are still a good number of materials that are undergoing restoration.



Fig 5 Hamilton Library Basement after reopen in August 2010

Sinclair Library contains a music library and the Wang Audiovisual Center where it is possible to borrow or view audiovisual materials. There are also reading rooms and meeting rooms that can be reserved. A particular feature of Sinclair Library is the Student Success Center where students can find information about various fields of study and employment. Due to the increase in library materials and limited space in Hamilton Library, journals and periodicals mostly published in the 1980s and prior are stored at Sinclair Library.

4. The Korea Collection

4.1. The Asia Collection

The Asia Collection in Hamilton Library includes materials about the State of Hawaii and Pacific Islands and holds a special meaning for the many people of Asian descent in Hawaii. From the establishment of Japanese Studies in 1920, the Oriental Institute, which emphasized Chinese, East Indian, and Japanese Studies, was opened in 1930. Along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East-West Center in 1962 the East Asian Library began to collect resources from Korea and various Asian countries. The Asia Collection was transferred to the University of Hawaii in 1970, securing its place as one of the unique features of the University. Research and curriculum development on Asia related topics, aided by the Asia Collection, has come to be emphasized by the University of Hawaii. There are individual librarians for the Korean, Japanese, Chinese, Southeast Asia, South Asia Collections, and a part-time librarian for the Filipino Collection. There are also two staff and student workers that aid the librarians. Currently there are 24 countries and 17 different languages that are represented in the Asia Collection.



Fig 6 Asia Collection Reading Room

4.2. The Korea Collection

The Korea Collection was started in 1938 when the Korean immigrant Dr. Yang Yu-ch'an contributed several rare Korean books in memory of his wife. Currently the Dr. Yang Yu-ch'an collection is part of the Special Korea Collection. In 1939 upon the founding of the Korean American Cultural Association in Los Angeles, a goal to create a Korean collection at universities in the United States was made. In order to fulfill this, it is said that advertisements were placed in Korean newspapers that stated their intention to contribute Korean books to American universities. In 1943 the Korean American Cultural Association donated books to the University of Hawaii's Korea Collection. In the following year they also made similar donations to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ystem, American University in Washington D.C., and the University of Chicago. It is notable that the president of the University of Hawaii during that time, Greg Sinclair, was elected to be the chair of the Korean American Cultural Association's Library Committee in the early 1940s.

At the end of this encouragement and effort, the Korea Collection began separate operation in 1960. With support from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a part-time librarian maintained the Korea Collection. In 1992, Dr. Chun Kyung-mi became the first full time Korean specialist librarian. From this time the University of Hawaii's Korea Collection began to experience full-fledged growth. The collection of 3,000 books in 1964 had expanded into over 67,000 in 2011, the ninth largest collection of its kind in North America.

The University of Hawaii's Korea Collection consists of material ranging over diverse fields of study. Particular attention has been paid to collecting materials in linguistics, history, literature, and sociology, fields that are being actively developed through research at the University. Furthermore, the Collection has been steadily amassing materials about North Korea and Korean films as well as other media that has only recently become the focus of attention in the academic community. In the case of Korean films, DVDs and related materials, many of these items were chosen by the Hub-library Support Program for Korean Film Studies run by the Korean Film Council in 2007, which was created in order to raise more international researchers and revitalize the field.

From 1994, as a member of the Korean Collection Consortium of North America supported

by the Korea Foundation, the University of Hawaii has been developing a special collection that includes the following subjects:

- Korean history to 1392
- Urban planning
- Traditional music
- Public health
- Architecture
- Modern society
- Materials that are published on/in Jeju Island
- Materials on Korean studies published in Europe
- Materials on Korean studies published in Hawaii

In addition, with funding by the National Research Center, other areas of study are being developed, which include cross-studies of Korea, China, and Japan. Of particular notice is the effort to collect materials about Islam in Korea.

Old and rare Korean, Chinese, and Japanese books are maintained separately in the closed stacks of the Asia Collection's Special Collection. Catalogs of old Korean books held by the University of Hawaii's Korea Collection, such as Samgangoryundo or Tong ũi pogam, are in the process of being created and registered with the Korea Old and Rare Collection Information System run b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It is expected that once the catalog is published and distributed, it will be of great help to the many researchers of premodern Korean studies. A total of 429 volumes of the Inventory List of Chosŏn Ch'onddokpu Chungchu'uwŏn and the Marshall Pihl Collection, donated by a scholar of Korean linguistics, Marshall Pihl, are included in the Korea Special Collection.



Fig 7 Asia Special Collection

4.3. The Use of the Korea Collection

The University of Hawaii uses the Voyager Online Catalog program. All of the materials held by the University of Hawaii including Korean studies materials are searchable via the Voyager Online Catalog. Furthermore, through Voyager it is also possible to search OCLC WorldCat, the catalogs of cooperating universities, and the interlibrary loan system. The Korea Collection subscribes to various online databases including the E-Korean Studies Database, KISS, DBpia, RISS International, and KPM. In addition, the Collection also subscribes to the Donga Ilbo archives, the Chosun Ilbo archives, and has an exchange program with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where its Digital Library resources can be searched and downloaded.

Aside from reference service for the Korea Collection, the Korean librarian is also responsible for regular hours as reference help for the Asia Collection as a whole, as well as participating in the Korean Collection Consortium of North America's "Ask a Korean Librarian!" service. Furthermore, in order to support the University of Hawaii researchers, professors, and students, individualized email reference service and meetings are offered. Every semester the Korean librarian also speaks to Korean studies classes about how to use the library, introduces the Korea Collection, and explains how to use it. In addition, through the library's Library Guides webpage, the Korean librarian also provides a thorough introduction of the Korea Collection and directions on its use.



Fig 8 Korea Collection's Libguide page

Through various exhibitions, efforts to increase the understanding of publications and displays about the Korea Collection are being made. These include the 2010 exhibition that featured Korean movies coinciding with the Hawaii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the exhibition on Korean script presented during Hangŭl Day in 2011.

4.4. The Future of the Korea Collection

It has been difficult to create a long-term plan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 Collection as the University's budget and subsequently the library's budget depends on the financial condition of the state. For the development of even more specialized collections the long-term view and support must coincide.

In the future, more attention will be paid to the preservation of the special collections, the inventory department, close-knit associations, and the cataloging of Korean studies materials through various methods to further their effectiveness. Moreover, collection of North Korean materials, movies, and translated English copies of Korean literary works will continue to be steadily and intensively developed. In order to do so, through the continual and close-knit exchange with Korean research institutes, the library, and various other institutes that are related to Korean studies in North America, effort is being made to advance the University of Hawaii's Korea Collection.

Korean culture has on one hand become independent from, and on the other hand has harmonized with various other cultures in Hawaii due to the long history of Korean immigration and the melting pot nature of Hawaii. On the foundation of the recent Korean Wave, the interest in Korean culture and subsequently the interest in Korean studies has expanded.

At the center of Korean studies is the University of Hawaii's Korea Collection which will do its best to help connect the East to the West and Korea to the rest of the world.

북유럽아시아학연구소 NIAS 도서관정보센터

페르 한센* 및
게이르 헬게센**

1. 서론

덴마크 코펜하겐에 자리하고 있는 NIAS 도서관정보센터(NIAS LINC)는 유럽에서 사회과학 계통의 근대 아시아학에 있어 주요 도서관 중 하나이다. NIAS LINC는 문서 및 정보와 함께 정보조사 제공서비스와 기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북유럽 지역의 아시아학 연구자들과 학생들을 위한 네트워킹, 학습, 연구 시스템의 핵심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또한 NIAS LINC는 북유럽에서 한국에 관한 가장 방대한 자료를 갖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우리 도서관의 데이터베이스에는 3,000여 권이 소장되어 있는데, 이는 중국, 인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이다.

도서관은 모기관인 북유럽아시아연구소(NIAS)와 함께 1968년에 설립되었고, 연구소는 1989년까지 스칸디나비아 아시아연구소(SIAS)로 불렸다. NIAS LINC는 북유럽 국가들 간의 협력체인 북유럽각료회의(Nordic Council of Ministers)로부터 주로 예산을 지원받아왔으며, 코펜하겐대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들뿐 아니라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을 포괄하는 북유럽 전 지역을 위한 아시아학 도서관정보센터로 기능하고 있다.

북유럽아시아연구소(NIAS)는 1968년 설립 이래 코펜하겐대학교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행정적으로 사회과학부에 통합되었으나 북유럽 지역을 포괄하는 연구

* 북유럽아시아학연구소 도서관정보센터 사서

** 북유럽아시아학연구소 소장

소로서 독립적인 학술적 책무를 맡고 있다.

1968년부터 1989년까지 우리 연구소와 도서관은 코펜하겐 도심에 있는 코펜하겐대학교의 다른 동양학 연구소들과 한 건물 안에 자리했다. 이후 1989년부터 1995년까지는 인문학부 캠퍼스에 있다가, 1995년에 인문학부 캠퍼스 인근의 현재 자리로 옮겨졌다. 연구소는 2012년 10월에 다시 도심에 있는 사회학부 캠퍼스로 이전되었다. 도서관 직원들의 사무실도 그곳으로 옮겨졌으나, 도서관의 열람실은 연구소에서 도보로 몇 분 거리에 있는 사회학부 도서관에 위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도서관의 열람실은 주중 하루 14시간, 주말 6시간씩 개방될 수 있다. 이는 이전까지 열람실이 주중에만 6.5시간씩 개방되는 것에 비해 크게 개선되는 것이다.



그림 1 북유럽아시아연구소(NIAS) 건물



그림 2 게이르헬게센 소장과 그의 저서, 「Ideas, society and politics in Northeastern Asia and Northern Europe」

NIAS LINC는 사회과학과 인문학 분야의 서적 40,000여 권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들 서적은 주로 영어로 되어 있다. 이 서적들은 덴마크 국립데이터베이스인 Bibliotek.dk와 월드캣(WorldCat)에 있는 왕립도서관(Royal Library)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REX의 NIAS 도서관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을 수 있다. 연간 대출 건수는 10,000여 건에 이른다. 또한 도서관은 저널도 다량 보유하고 있는데, 원문(full-text)이 제공되는 전자저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아시아포털(AsiaPortal)을 통해 아시아 언어로 된 전자 데이터베이스가 북유럽지역의 연구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우리 도서관이 포괄하는 아시아 지역은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이다. 북유럽 국가들의 도서관에는 도서관 상호대차와 논문 복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NIAS LINC의 장서들이 북유럽 지역에서 쉽게 이용되도록 한다.

우리 도서관은 또 전통적인 도서관과 같이 이용자들이 찾아와서 저널을 읽고, 책을 대

출하고, 데이터베이스와 인터넷을 이용하고, 도서관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 앞으로의 방향

NIAS 도서관정보센터는 도서관과 북유럽 아시아포털을 통해 지속적으로 아시아학에 관한 정보 및 지식의 온라인/오프라인 허브로서의 기능을 강화시키고자 한다. 특히 이용자의 정보환경에 맞는 새로운 맞춤형 서비스와 북유럽 NIAS회의(NNC)의 회원기관들에게 제공되는 유료 학술자료들에 대한 액세스 등 이용자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 도서관은 데이터베이스와 전자책/전자저널과 같이 아시아어 및 영어로 된 전자 자료들을 www.AsiaPortal.info에서 보다 많이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시아 지역 내 북유럽센터(Nordic Centre)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더욱 증진될 것이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정보환경에서 NIAS LINC는 다른 관련 자원들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포괄적인 검색을 가능케 하고, 북유럽 지역의 아시아학 연구자들을 위한 WEB 2.0 기반의 소셜네트워킹과 같이 학제간 협력과 소통을 지원하는 검색 설비와 도구를 구축하는 등 이용자들의 다양한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유형의 간행물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으며 연구 논문의 발행 및 배포에서 오픈액세스 자원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아시아포털과 우리 도서관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미 수백 권에 달하는 북유럽의 논문들과 학술간행물들이 오픈액세스 문서로 소장되어 있다.

NIAS LINC는 문헌 및 정보 제공 서비스와 참고 등 기타 지원 서비스의 통합을 통해 이러한 이슈들에 대응함으로써 NIAS와 북유럽 NIAS회의(NNC)의 학습 및 연구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NIAS LINC는 현재 전자책을 수집하여 NNC의 회원기관들에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전자책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우리 도서관의 단행본 장서에서 앞으로 전자책의 비중이 증가할 것이다.

3. 아시아포털

아시아포털은 2006년에 스웨덴 룬드대학교 도서관과의 협력 하에 구축되었으며, 이후

북유럽 연구 및 연구자들, 아시아학을 전공하는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자들을 위한 자료, 뉴스, 행사, 블로그에 대한 액세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개방형 포털로 성장하였다. 아시아 포털에서는 또 매일 아시아와 관련한 새 소식들이 제공된다. 학술자료 섹션(Academic Resources Section)은 NNC 회원들과 NIAS LINC, 왕립도서관 또는 코펜하겐대학교 도서관을 방문하는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특별한 혜택이다.

NIAS LINC는 AsiaPortal.info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NNC 회원들뿐 아니라 기업 및 정부 관계자들, 언론인, 기타 아시아에 관심있는 일반인들이 아시아에 관한 종합 자료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아시아포털은 지속적으로 모든 NNC 회원들의 소식과 행사, 연구자, 기관, 간행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더 나아가 NNC 회원기관들을 위해 유료 학술자료에 대한 액세스를 우선 제공할 것이다. 아시아포털은 앞으로도 아시아에 관한 북유럽 지역의 연구 및 학술교류의 중요한 통로로 기능할 것이다.

4. 북유럽 NIAS회의

북유럽 NIAS회의(NNC)는 2005년에 창립되었으며 현재 북유럽 지역에 소재하는 20여 개 대학과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회원기관은 연회비를 지불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도서관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기관들은 아시아포털의 학술자료 섹션(Academic Resources Section)에서 전자적으로 제공되는 방대한 양의 원문(full-text)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NNC 도서관 회의에서 회원기관들은 NIAS LINC가 이듬해에 신청할 데이터베이스를 결정한다. 데이터베이스 호스팅 기관과의 라이선스 협상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5개국 20여 개의 기관들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액세스권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5. SUPRA

아시아학 지원을 위한 NIAS의 장학금 프로그램인 SUPRA(SUpport PRogramme for Asian studies)는 우리 연구소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다. SUPRA를 통해 NNC 회원기관들은 석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들 중 장학생을 선발하여 이 학생들이

2주간 NIAS에 와서 도서관을 이용하고, 도서관 직원들의 특별 지원을 받고, NIAS의 연구자들로부터 연구에 대한 피드백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해마다 50여 명의 장학생들이 NIAS를 방문한다.

NIAS SUPRA 프로그램과 ACERS(Asian Century Research School Network)를 통합함으로써 학생들에 대한 활동과 서비스가 병합되었는데, 이는 석박사과정 학생들을 주된 타겟으로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네트워크 하에서 학제간 연구 및 아시아학을 통합하는 이론 및 방법에 관한 정기 강좌가 관련 학생들에게 제공된다. 또한 전세계에서 온 초빙 연구원들이 매해 NIAS를 방문하며, 도서관 직원들은 이들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6. 한국 관련 장서

NIAS LINC의 한국 관련 장서는 대부분 한국의 국립중앙도서관이 한국의 창(Window on Korea) 프로그램을 통해 기증한 책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글과 영어로 된 이 책들은 사회학 및 인문학 분야로 분류된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기증은 지금까지 우리 도서관이 받은 어느 기증보다 규모가 큰 것이었고 코펜하겐의 한국대사관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NIAS LINC로 방대한 양의 서적들을 옮기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그림 3 한국의 창(Window on Korea)



그림 4 한국의 창 개실식

한국의 창 프로그램을 통해 기증받은 책들은 특별 장서로서 여러 서가에 비치되어 있다. 2012년 10월 도서관 열람실이 사회과학부도서관으로 옮겨졌지만 이 책들은 NIAS

LINC의 다른 한국 관련 장서들 옆 서가에 비치되었다. 1,700권이 넘는 이 책들은 2012년 2월에 기증받아 7월 말까지 모두 목록화되었고, NIAS LINC의 다른 한국 관련 자료들과 함께 도서관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재는 북유럽 전역에서 도서관 상호대차용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들 중 약 1,300권이 한글로 되어 있고, 나머지 400여 권은 영어로 되어 있어 한국학 장서 중 영어로 되어 있는 책이 총 1,600여 권에 이른다. 한국의 창(Window on Korea) 프로그램은 향후 4년간 지속될 예정이기 때문에 NIAS LINC는 매해 상당량의 책을 기증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NIAS LINC는 또 한국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액세스권을 부여받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국의 창(Window on Korea) 장서는 2012년 4월 23일에 덴마크 주재 한국대사관의 김병호 대사, NIAS 소장인 게어 헬게슨 박사, 코펜하겐대학교 마틴 페티슨 박사의 참석 하에 공식적인 개실식을 가졌다.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도 수십 년 동안 해마다 NIAS LINC에 한국에 관한 책들을 다량 제공해주었다. 이 책들은 모두 우리 도서관의 한국학장서에 비치되어 있다.

7. NIAS의 한국 관련 활동들

세계화의 흐름 속에 아시아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는 가운데, 여러 아시아 국가들을 알아야 할 필요성도 증가하였다. 학계 내외에서 중국과 일본 전문가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북유럽 지역 내의 한국 전문가들은 그 수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NIAS는 북유럽 지역의 한국 연구 및 정보센터인 KRIC를 설립함으로써 이에 대응하고 있다. 한국 내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진행된 지난 30여 년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NIAS는 KRIC를 통해 북유럽 지역의 외무부, 기업, 언론 등 민관기관에 한국과 관련한 전자 및 인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정보에 대한 수요가 최근 크게 증가했으며, 한국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받은 관대한 기증 덕분에 NIAS는 지속적으로 북유럽 지역에서 연구 중심의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이것이 북유럽 지역과 한국 간의 호혜적인 관계를 강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2

The NIAS Library and Information Centre at the Nordic Institute of Asian Studies, Copenhagen

Per Hansen* and
Geir Helgesen**

1. Introduction

The NIAS Library and Information Centre (NIAS LINC), located in Copenhagen, Denmark, is among the major European centers for the study of modern Asia with an emphasis on the social sciences. NIAS LINC provides value-adding activities integrating the supply of documents and information with reference, guidance and instruction, thereby engaging as an integrated component in the networking, learning and research systems of Nordic Asian studies scholars and students. The LINC Library and Information Centre holds and maintains the largest library collection on Korea in all the Nordic countries. Nearly 3,000 books can be found in the library's database, making it the third largest collection in the library, surpassed only by those on China and India.

The library was founded in 1968 together with its mother institute, the Nordic Institute of Asian Studies (NIAS) which until 1989 was known as the Scandinavian Institute of Asian Studies (SIAS). NIAS LINC has consistently been primarily funded by the Nordic Council of Ministers, the forum for governmental co-operation in the Nordic region, in order to operate as an Asian studies library and information center for scholars and students not only from the

* Librarian, Library and Information Centre, Nordic Institute of Asian Studies

** Director, Nordic Institute of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openhagen, but from across the entire area comprising Denmark, Finland, Iceland, Norway, and Sweden.

NIAS has since its inauguration in 1968 been hosted by the University of Copenhagen and has been administratively incorporated into the Faculty of Social Sciences since 2005, albeit with independent academic responsibilities stemming from the institute's Nordic mandate.



Fig 1 NIAS building



Fig 2 Dr. Geir Helgesen (NIAS Director) with his book, *Ideas, society and politics in Northeastern Asia and Northern Europe*

From 1968 to 1989, the institute and library were housed in the city center of Copenhagen in a building shared with the other Asian institutes pertaining to the University of Copenhagen. Between 1989 and 1995, the campus of the Faculty of the Humanities served as home to NIAS. In 1995, a move to its present premises neighboring the campus of the Faculty of the Humanities was undertaken. In October 2012, the institute will relocate to the city-center campus of the Faculty of the Social Sciences. The library staff offices will reside there as well, but the library reading room will be sited within the Social Sciences Faculty Library, a few minutes' walk from the institute. This means that the library's reading room will be accessible 14 hours every weekday and six hours a day on weekends, marking a major improvement over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the reading room can be accessed only six and a half hours per day and exclusively on weekdays.

NIAS LINC holds roughly 40,000 books, primarily in English and within the fields of the social sciences, but also spanning to the humanities. These books can be found through the library's database in the Royal Library database system, REX, via the Danish national database, Bibliotek.dk, and in WorldCat. Over 10,000 loans are extended each year. The

library also hosts an extensive collection of journals, among which a steadily increasing number feature electronic access to their full text.

Furthermore, electronic databases in Asian languages are being made available for our Nordic colleagues via the AsiaPortal. The library covers the following regions of Asia: Central Asia, East Asia, South Asia, Southeast Asia, and Oceania. Interlibrary loans and photocopies of journal articles are made available to libraries in the Nordic countries in order to ensure that NIAS LINC's collections are easily acquirable throughout the region.

The library also functions as a traditional library where walk-in users are welcome to read journal articles, borrow books, access databases and the Internet and receive guidance from library staff.

2. The future

The NIAS Library and Information Centre intends to continue to enhance its status as a virtual and physical focal point for information and knowledge on Asian studies by operating the library and the Nordic AsiaPortal. In particular, the library will emphasize providing new services to users from within their respective information environments and enhancing NIAS's outreach to the user community, including promoting access to fee-based academic resources to our member institutions among the Nordic NIAS Council. The library will undertake efforts to create access to a greater number of Asian and English language electronic resources, i.e. databases and electronic books and journals via the www.AsiaPortal.info. Networking efforts to promote cooperation with Nordic Centers in Asia will be strengthened in the years to come.

In this rapidly changing information environment, it is important for NIAS LINC to remain responsive to all kinds of relevant user demands, such as emplacing search results in a wider context by linking to other relevant resources and making cross-disciplinary search facilities and tools for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like WEB 2.0-based social networking tools available to Asian studies scholars in the Nordic region. New forms of publication are constantly being developed, and open access resources are emerging as an important facet of research publication and dissemination. The AsiaPortal and the library's database already contain hundreds of Nordic dissertations and scholarly publications as electronic open access

documents.

NIAS LINC will seek to address all these issues by providing value-adding activities and services integrating the provision of literature and information with reference, guidance and instruction, thereby becoming an integrated facet of the learning and research systems of the NIAS and the Nordic NIAS Council (NNC).

NIAS LINC is currently engaged in acquiring e-books for provision to NNC member institutions in order to allow to the instant availability of these titles. If the e-book project proves successful, an ever growing portion of the library's monograph collection will be electronic in the years to come.

3. The AsiaPortal

The AsiaPortal was established in 2006 in cooperation with the Lund University Library, Sweden. Over the intervening years it has grown into a free open-ended portal providing access to Nordic research and researchers, news, events and blogs, a comprehensive collection of resources for researchers working in the social sciences regarding Asia, and daily-updated Asia-related news. Access to the Academic Resources Section is a special benefit for NNC members and those visiting NIAS LINC, the Royal Library, or any of the libraries of the University of Copenhagen.

NIAS LINC intends to continue with the development of AsiaPortal.info in order to facilitate access to all relevant Asia-related resources to NNC members as well any private firms, journalists, governmental officials, and members of the general public holding an interest in Asia. The AsiaPortal continues to offer access to news, events, researchers, institutions, and publications from all Nordic NIAS Council members. Furthermore, the Portal will provide prioritized access to fee-based academic resources for NNC member institutions. In the future, the AsiaPortal is meant to develop into an even more valuable outlet for Nordic research and scholarly communication on Asia.

4. The Nordic NIAS Council

The Nordic NIAS Council (NNC) was founded in 2005 and currently comprises more than 20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across the Nordic region. All member institutes contribute a yearly membership fee which allows them a number of benefits. Regarding library services, it is important for member institutions to gain access to the extensive electronic collection of full-text databases in the Academic Resources Section of the AsiaPortal.

Every year at the NNC annual library meeting, the databases to which NIAS LINC should subscribe the following year are determined through discussion among the members. Negotiations with database hosts regarding licenses are often complex and time consuming, since more than 20 institutions in five different countries must be granted rights to access the databases.

5. SUPRA

Another important feature is the NIAS scholarship program, SUPRA (SUpport PRogramme for Asian Studies) enables NNC member institutions to dispatch scholarship students, pursuing both MA and PhD degrees, to NIAS for a period of two weeks in order to utilize the library and receive special attention from the library staff, as well as acquire feedback on their work from the researchers at NIAS. Nearly 50 scholarship students visit NIAS on an annual basis.

Through the integration of the NIAS SUPRA program with the Asian Century Research School Network (ACERS), the activities and services provided to students can be combined. This is done in order to ensure a clear focus on Master and PhD students as the primary target group. Under this research school network, a regular course on issues relating to theory and methods in combining disciplinary and Asian studies is offered to students from relevant disciplines. Furthermore, every year guest researchers from all over the world visit NIAS and are catered to by the library staff.

6. The Korean collections

The majority of NIAS LINC's Korean collection consists of books recently donated b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Seoul, through their Window on Korea program. The works in Korean and English are all in the fields of the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This donation was by far the most generous that our library has ever received.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Copenhagen was instrumental in transporting this remarkable volume of books from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to the NIAS LINC.



Fig 3 Window on Korea (WOK)



Fig 4 Opening Ceremony of WOK

The Window on Korea books have been placed on separate shelves and thus constitute a special collection. After the transfer of the reading room of the library to the Faculty of Social Sciences Library has taken place in October 2012, the Window of Korea books will remain on dedicated shelving next to NIAS LINC's other Korean collections.

The Window on Korea Books, totaling more than 1,700, were received at NIAS in February 2012 and by the end of July had been catalogued and, together with NIAS LINC's conventional Korean collection, made searchable in the library's database. They are now available for interlibrary loan throughout the Nordic nations.

The books in the Window on Korea collection are mainly in Korean (ca. 1,300), but more than 400 are in English, leading the English language books in both Korean collections to total approximately 1,600. The Window on Korea program is intended to continue for the next four years, indicating that NIAS LINC will receive each year a substantial number of books, and hopefully also be granted access to Korean databases.

The Window on Korea collection was officially inaugurated on April 23, 2012 at a ceremony at NIAS by His Excellency Mr. Byung-ho Kim, Korean Ambassador to Denmark, Dr. Geir Helgesen, NIAS Director, and Dr. Martin Petersen, University of Copenhagen.

It must also be mentioned that for decades the Korea Foundation has on a yearly basis generously supplied NIAS LINC with highly relevant books on Korea. These books may all be found in the library's general Korean collection.

7. Korea-related activities at NIAS

As Asia steadily grows more important in this economically globalized world, the need to be aware of and understand the diverse Asian nations has increased. While a mounting number of academic and non-academic experts can be found on China and Japan, in the Nordic region there are fewer with solid insight into Korean affairs. This challenge has been approached by NIAS through establishing KRIC, the Nordic Korea Research and Information Centre. Building upon 30 years of studies, in close cooperation with colleagues at Korean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NIAS has created in KRIC a strong base for disseminating information on Korean affairs to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throughout the Nordic region, such as ministries of foreign affairs, private enterprises and media outlets, both electronic and printed. The demand for this type of information has recently increased, and thanks to the generous donation from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NIAS is able to continue to provide research-based knowledge and information to an interested Nordic audience. We hope and believe that this will further strengthen relations between the Nordic region and Korea to our mutual benefit.

중국 국가도서관 한국어 문헌 사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도서관 문헌을 중심으로 -

왕 유 세 *

1. 머리말

한국의 경제발전으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한류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 문헌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각국의 대형 도서관들은 한국학 문헌을 중요 문헌으로 소장하고 있다. 중국 국가도서관은 중국 내 최고의 외국어문헌 소장기지로 자랑할 만큼 국내 최대 한국어 문헌을 소장하고 있다. 그 종류로는 도서, 정기간행물, 전자자료, 인터넷 데이터베이스 등이 있으며 총 장서량은 3만여 건에 달한다. 이들은 아주 귀중한 문헌으로서 중국 내 이용자들에게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한국을 이해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한국어 도서관 문헌을 중심으로 하여 중국 국가도서관 한국어 도서관 문헌 사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중국 국가도서관 한국어 문헌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함께 전 세계에 위치한 한국어 문헌 소장기관, 학자, 도서관 사서들 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 해외 한국학 문헌소장사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중국 국가도서관 외국어문헌조직부 한국 문헌 수집 담당 사서

2. 중국 국가도서관 한국어 문헌 사업의 역사

2.1. 중국 국가도서관 개관

중국 국가도서관은 중국 출판물의 대표 서고로서 국가도서목록센터이자 국가고서보존센터이다. 따라서 중국 국가도서관은 국내외 각종 문헌 소장과 보존 업무를 수행하고 중국 내 문헌 보존사업을 관리한다. 국가중앙행정기관, 사회기관 및 일반 국민에게 문헌정보와 참고봉사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관학 이론과 도서관 관리 사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또한 전국 도서관 업무를 관리하고, 대외적으로는 문화 교류를 이행하고,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및 관련 국제조직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내외 도서관의 교류와 협력을 도모한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 국가도서관은 1909년 9월 9일 베이징에 건립된 경사(京師)도서관이 그 전신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후 북경도서관으로 명칭을 바꿨다. 1975년 3월, 중화인민공화국의 제1임 총리 주은래(周恩來)의 지도 아래 중국 국가도서관 신관을 북경 서교백석교(北京西郊白石橋)로 허가를 받고 건축을 시작해 1987년에 건립됐고 덩소평(鄧小平)의 친필휘호 현판이 북경도서관에 걸렸다. 1988년 12월 12일 국무원(國務院)의 비준(批准)으로 북경도서관은 국가도서관으로 또다시 명칭을 바꾸고 대외적으로는 중국 국가도서관이라 불렀다. 1999년 4월 16일 강택민(江澤民)이 중국 국가도서관의 명칭을 친필로 써서 기증하였다. 2004년 12월 28일, 중국 국가도서관 2기 공사인 국가디지털도서관 공사의 기공식을 진행했고 2008년 9월 9일 시민들에게 처음으로 선보였다.



그림 1 문진가 경사도서관 구지, 지금의 중국 고적도서관



그림 2 중국 국가도서관 백석교 총관 남구(본관)



그림 3 중국 국가도서관 백석교 총관 북구, 중국 국가디지털도서관

중국 국가도서관은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 건축풍인 문진가(文津街) 경사(京師)도서관 구지(舊地, 3만여 m²)와 한나라와 당나라 시대 건축풍인 백석교(白石橋) 총관 남구(14만여 m²), 현대 건축풍인 백석교 총관 북구(8만여 m²) 등 세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관사 총 연건평 면적 250,000m²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서관이다. 중국 국가도서관은 전통과 현대의 결합과 획기적인 인터넷 지식센터와 정보 서비스 기지로, 세계 최대의 중국어 문헌소장·제공센터이자, 중국 내 최대의 외국어 문헌 소장·제공센터이며, 세계 첨단기술을 확보한 국가급 도서관 중의 하나로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중국 국가도서관의 소장자료는 내용 및 수량 면에서 매우 우수하다. 통계에 따르면, 2011년 말까지 이미 2,994만 책(건)에 달했으며 매년 100 만 책(건) 정도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고서 원본 소장으로 유명한데 그 중 희귀본은 27만 책(건)이며, 일반고서는 164만 책(건)에 달한다. 도서관 내 소장품으로 은허갑골(殷墟甲骨), 돈황유서(敦煌遺書), 조성금장(趙城金藏), <영락대전(永樂大典)>, <사고전서(四庫全書)> 등 극히 진귀한 소장품과 외국의 선본문헌인 초기 판본으로 1473-1477년 사이에 인쇄된 유럽 <요람본(搖籃本)>이 있다.

중국 국가도서관은 중국에서 출판된 중국어 도서를 모두 소장하고 있으며, 115종 언어의 외국어 문헌자료가 전체 소장자료의 50%를 차지하여 중국 내에서 외국어 문헌 최대 소장기관이기도 하다. 또한 명인의 필사본과 혁명 역사문헌 그리고 중국 내 박사논문 등 특수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현재 UN 및 외국 정부 출판 간행물의 위탁 소장 기관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정보화시대의 발전과 아울러 전자 자료 출판물도 대량 소장하고 있다. 2011년 말 현재, 소장하고 있는 디지털 자료는 561.3TB에 달한다. 또한 국내 도서관 간의 도서 상호대차 센터로서, 국내 558개의 문헌 정보 제공 단체와 문헌 상호대차를 위한 협정을 맺고 있으며, 매년 대출량은 거의 3만 건에 달한다. 현재 117여 개 나라와 557개 지역 도서관 및 기관과 문헌 교환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중국 국가도서관과 한국 국립중앙도서관 사이의 협력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997년 말, 중국 국가도서관은 한국 국립중앙도서관과 협정을 맺고 현재까지 15차례에 걸쳐 업무 교류를 수행하였다. 또한 사서 연수교환제도를 실시하여 상호 간의 업무에 대해 깊은 이해를 촉진시켰다.

2.2. 중국 국가도서관 한국어 문헌 사업의 연혁

중국 국가도서관의 한국어 문헌 사업은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중화인민 공화국 건국 초기, 국가 지도자들은 주변 국가의 문헌 수집을 매우 중시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시켰다. 1992년 한중수교와 더불어 양국 관계의 정상화 및 경제·문화교류가 증가되었으며, 한국어 문헌 사업도 2차 발전단계에 진입하여 대한출판문화협회, 주중한국문화원 등을 포함한 여러 기관에서 중국 국가도서관에 대량의 고품질 도서 자료를 기증해 주었다. 당시 교통과 통신 등이 그다지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는 중국 국가도서관 한국어 문헌 소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후 담당 사서의 퇴직과 인사 변화 등의 이유로 한국어 문헌 담당직은 거의 6년 넘게 공석으로 남아있었다. 이 기간에는 주로 국제 교환과 기증 방식을

통해 장서를 확충했으며, 장기 구입방식으로는 연감 자료만 수집하였다. 따라서 한국어 문헌 사업은 한동안 침체기를 맞았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외국어문헌조직부에서는 2006년에 한국어 문헌 담당 전문 사서를 채용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한국어 도서 목록화 작업을 종이 카드 형식에서 MARC포맷으로 전환하여 획기적인 업무변화를 가져왔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거의 6년 간의 발전을 통해 한국어 문헌 소장업무는 점차 정상화 되었다.

3. 중국 국가도서관 한국어 문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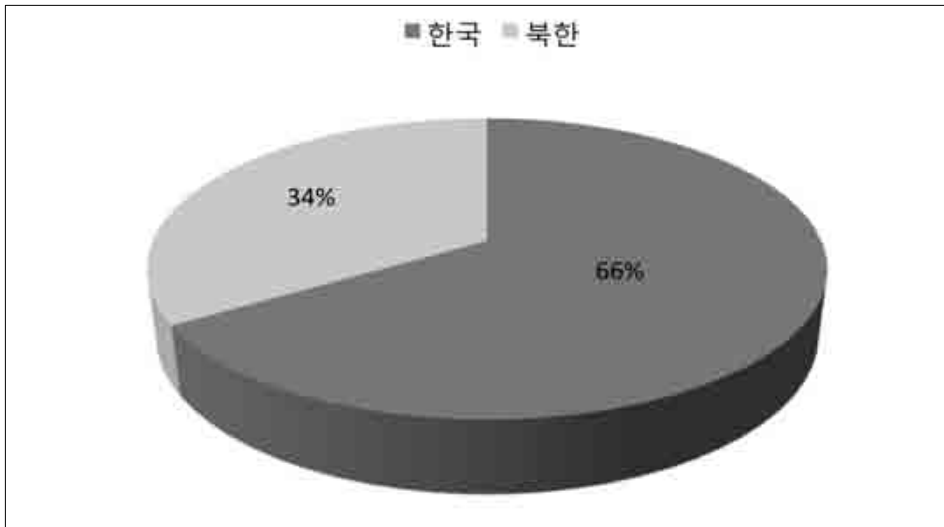
3.1. 직원 현황

현재 중국 국가도서관의 한국어 문헌 사업 담당부서는 외국어문헌조직부 소속으로 동아시아문헌조직팀, 외국어정기간행물조직팀, 국제출판물교환팀, 그리고 소수민족어언문헌조직팀 이렇게 4개의 팀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동아시아문헌조직팀이 한국과 북한에서 출판된 도서, 시청각 자료 및 일부 비정기 구매 간행물을 관리하고 있다. 외국어정기간행물조직팀은 정기구매 간행물 및 소량의 한국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있다. 국제출판물교환팀의 주요 담당 업무는 해외 도서관 및 유관 기관과의 한국어 문헌 교환이고 소수민족어언문헌조직팀에서는 국내에서 한국어로 출판된 한국어 문헌의 수집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상기 네 팀에서는 각각 전문 사서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조선족 출신이거나 한국어를 전공한 졸업생들이다. 이들 중 외국어정기간행물조직팀의 담당 사서는 일본어 간행물 업무도 겸하여 담당하고 있다.

3.2. 한국어 도서류 문헌 소장 현황 분석

중국 국가도서관에서 현재 소장하고 있는 한국어 도서류 문헌에는 한국에서 출판한 도서 외에 북한에서 출판한 도서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2012년 상반기까지 중국 국가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한국어 자료는 도서자료 13,500여 종, 3만 여 책이 있다. 그중 한국에서 출판된 도서는 1만 2천여 종에 달하며, 전체의 66%를 차지한다. 북한에서 출판된 도서로는 6천여 종으로 34%를 차지한다. 단, 북한 출판 도서의 대부분은 세트류 도서이고 사본이 많다. 따라서 총 양에서는 오히려 한국 출판 도서보다 좀 더 많은 양을 차지한다. (다음 도표 참조.)

표 1 중국 국가도서관의 한국 및 북한 도서류 문헌 소장 비율



중국 국가도서관에서 한국어 문헌에 대한 초기 소장자료로는 20세기 초의 작품을 들 수 있다. 아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 국가도서관의 한국어 도서류 문헌 소장은 특히 1950년대와 1980년대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표 2 출판 연대별 한국어 도서류 문헌 소장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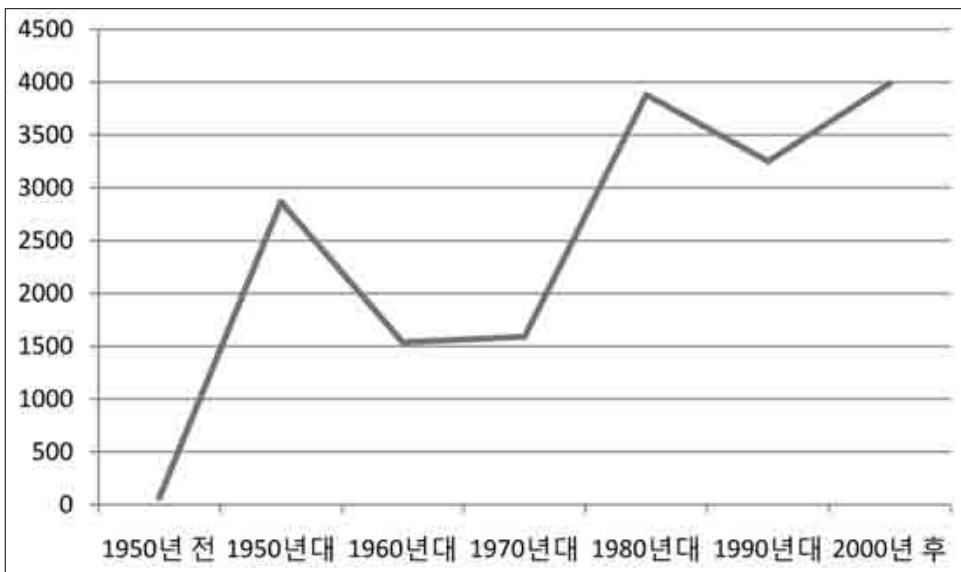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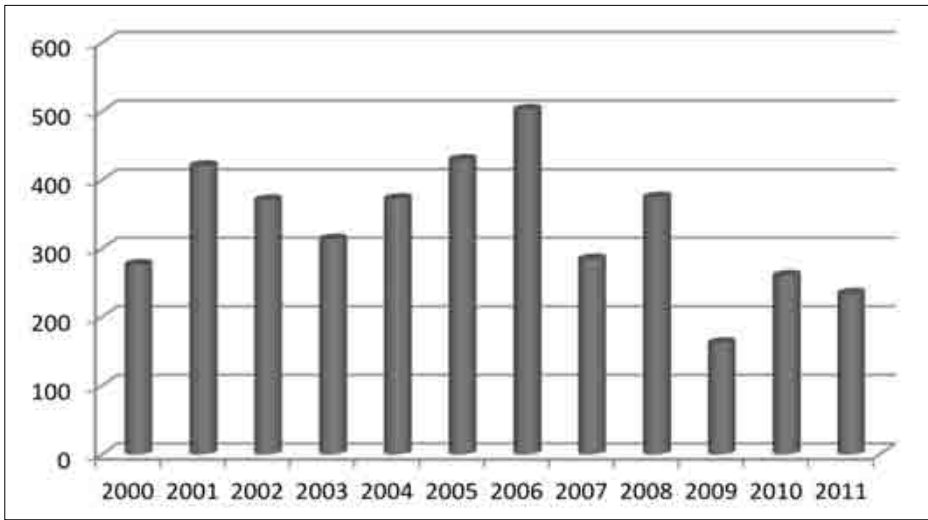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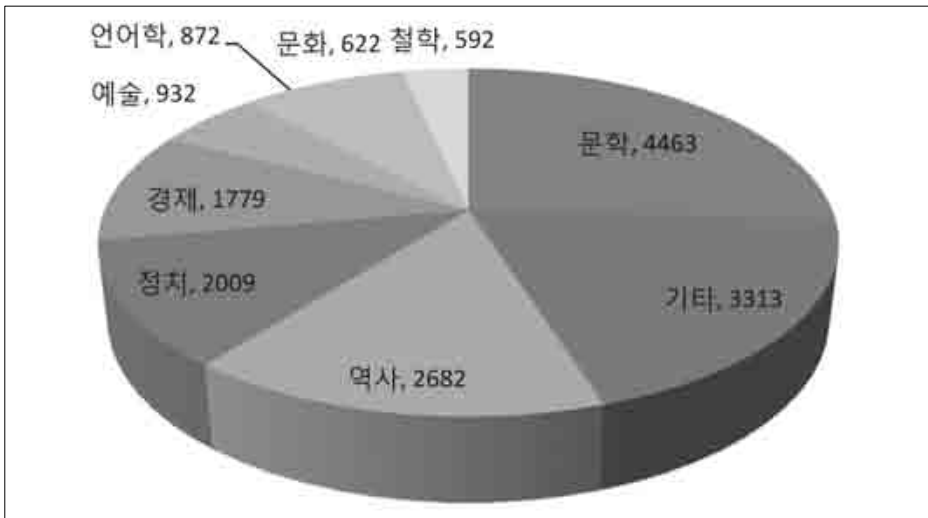


표 3 2000년 후의 출판 연도별 한국어 도서류 문헌 소장상황



분야별로 보면 문학류 도서가 총 4천4백여 권으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역사, 정치, 경제, 예술, 언어학, 문화와 철학류 도서 순이다. (아래 도표참조)

표 4 중국 국가도서관 소장한 한국어 도서류 문헌 학과별 대비 상황



문헌자료의 심도 깊은 이해와 분석을 통하여 중국 국가도서관 한국어 문헌의 여러 특성을 총괄해보았다.

A. 일찍 시작된 한국어 문헌 수집

한국어 문헌의 초기 수집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후부터 시작되었다. 또한 중국 국가도서관은 건립 초기, 외국어 문헌 수집 원칙을 확립하고 외국어 문헌 수집을 대대적으로 지원하였는데 특히 주변 국가에서 출판된 문헌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한국어 문헌 소장에 대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현재 중국 국가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한국어 문헌의 출판 연도는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소장자료 중 가장 오래된 것은 20세기 초의 작품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당시 한반도 역사 연구 및 문헌판본학 등의 연구에 큰 가치가 있다.

B. 도서 출처와 유형의 다양성

동아시아 나라의 문헌에 비해 한국어 문헌은 자료의 출처나 유형면에서 더 다양하고 풍부하다. 매년 정기적 구입 외에도 기증, 교환 등의 방법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단행본, 정기간행물, 전자 자료 등 모든 종류의 자료를 취급하고 있다. 한국동북아역사재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기관에서 발행하는 출판물을 장기간 도서관에 기증하고 있으며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과 활발한 국제 교환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문헌 기증 및 교환량은 일년에 무려 600여 권에 달하며 또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C. 북한에서 발간된 자료 소장

역사와 정치적인 이유로 다른 국가의 도서관에서는 북한에서 출판된 자료를 소장하기 어렵다. 중국 국가도서관은 북한에서 출판된 많은 도서와 간행물을 소장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기증받은 도서들이다. 2011년에 중국 국가도서관은 북한 도서의 교환과 구입 업무를 다시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소장하고 있는 북한 도서류 문헌은 총 6천여 종에 달한다. 이런 문헌들은 한반도 역사, 북한문헌 연구 등의 영역에서 귀중한 자료로 이용될 것이다. 한국 학자들도 중국 국가도서관에서 이러한 특수자료를 찾아보고 있다.

3.3. 한국어 도서의 선정 수집 및 목록화 업무

3.3.1. 선정 수집

다양한 문헌 선정 수집 방법과 증가된 사업 예산으로 중국 국가도서관의 한국어 문헌 소장자료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 국가도서관은 “12차 5개년 계획”에서 기술과학, 인문학,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해외 중국학, 법률 및 기타 분야에서의 외국어 학술 자료 수집을 보완하여 외국어 문헌 소장량을 강화할 것을 밝혔다. 이로써 다양한 언어로 된 인쇄자료와 디지털자료, 온오프라인의 자료 간에 보완할 수 있는 문헌 소장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한국어 문헌에서는 도서류 문헌을 예로 들 수 있다. 한국어 도서류 문헌은 매년 1,600책씩 증가했으며 이중 1,000책은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자료이고 나머지 600책은 국제 교환이나 해외 기증 방식으로 수집되었다. 한국에서 매년 출판되는 책은 약 40,000책에 달하며, 그중 중국 국가도서관의 수집 원칙에 맞는 책은 20,000책 정도로 보고되지만 현재 국내의 그 어느 도서 수출입업체도 한국에서 출판되는 책 전체에 대한 리스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한국어 문헌 신출판 도서 선정 수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가 직접 한국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열람목록(OPAC) 시스템인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KOLIS) 및 각 인터넷 서점을 통하여 신규 출판 도서 정보를 받고 이를 기준으로 도서 구입을 계획한다.

3.3.2. 자료 목록화 작업

현재 한국어 도서류 문헌 목록 구축량은 매년 1,000건씩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은 자체 구축한 MARC포맷이다. 중국 국가도서관의 외국 문헌 목록화 작업은 MARC21을 사용하고 있다. MARC21의 포맷을 사용한 목록화 작업은 ALEPH시스템에서 완성된다. 문헌 분류에서는 현재 최신 <중국도서관분류법> 제5판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 한국주제명표를 도입하지 못한 상태이다. 목록화 과정에서는 한국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시한 주제어를 참고하고 있다. 앞으로 RDA 등 선진적인 목록 규칙이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과 비영어권 언어의 문헌 검색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어 문헌 목록 구축 시 주제어를 추가하는 것이 불가피

控制号	001	-	001327450
订购和例向定长数据 ISBN	005	-	20070105160644.0
	008	-	060726s2002^^ko^abo^^^^^^000^0^kor^^
编目来源语言代码	020	-	a 8986903326 ;
		c	8,800원
本地索书号 主题名	040		a CcB ISG
	041	1	a kor
		b	chi
	090		a I267.1
	240	00	a 그지그래 /
		c	주어용원(崔永元) 저음 ; 리동혁 옮김, 도서
变异题名	246	33	a 그지그래 ;
		b	중국 최고 인기 MC의 중국 산책
出版项	260	-	a 서울 ;
		b	교도,
		c	2002.
载体形态	300	-	a 312 p. ;
		b	22 cm.
一般附注	500	-	a 원서명 ; 不过如此.
一般附注	500	-	a 원저자명 ; 崔永元.
附加-个人	700	1	a 880-01
		a	崔, 永元,
		d	1963-
附加-个人	700	1	a 880-02
		a	리, 동혁,
		d	1967-
其它图形表	880	1	a 700-01/\$1
		a	최, 영원,
		d	1963-
其它图形表	880	1	a 700-02/\$1
		a	李, 永元,
		d	1967-
所有本地索书号	OWN	-	a DB205
	096	-	a I267.1

그림 4 중국 국가도서관 목록화 작업시 사용한 ALEPH 시스템

하다고 본다. 이 역시 향후 중국 국가도서관에서 반드시 추진해 나가야 할 일이라고 볼 수 있다.

3.4. 중국 국가도서관 한국어 문헌 소장의 특색——“한국어 중국학 도서”

“중국어 문헌 수집은 완벽을 기하고 외국어 문헌 수집은 가능한 완벽하게 한다”는 원칙에 따라 중국 국가도서관은 한중 양국의 역사, 문화 등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특성을 살려 한국어 문헌의 수집과 목록 구축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중역사 관계 및 한중 양국의 밀접한 우호왕래로 한국에서 출판된 도서 중 중국 연구에 관한 도서가 적지 않다. 이는 중국 관련 학술영역과 양국 관계 연구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한국어 문헌 중 중국학 도서는 중국학술영역에서 중요한 연구가치를 지니고 있다.

중국 국가도서관은 외국어 문헌에서의 “중국학” 문헌의 학술가치를 중요시하여 중점 수집하고 있으며, 목록 구축 과정에서 그 문헌에 대해 특별 표기한다. 이는 검색에서 더 빠르고 쉽게 찾아내기 위함이다. 한국어 문헌을 예로 들면, 2006년 이후 소장한 신 도서 문헌 중 한국어로 된 “중국학” 도서는 17.6%의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 내용으로는 중국의 역사, 정치, 경제, 문화, 언어학, 문학 등 모든 사회학 영역을 포함한다. 향후 우리는 한국어 문헌 중 중국학을 다룬 문헌에 대한 수집을 강화함과 동시에 기타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에서 출판된 중국학 문헌 목록 및 개요 등을 정리하여 출판할 것이다. 또한 한국어로 발간된 중국학 관련 문헌을 널리 알려 대학교와 연구기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3.5. 한국어 문헌 서비스 및 이용 현황

현재 일반 이용자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한국어 문헌과 자료는 4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20년간 출판된 한국어 도서는 폐가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둘째, 최근 3년 내 출판된 한국어 정기간행물은 개가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출판된 지 3년이 지난 한국어 정기간행물은 제본하여 폐가식으로 열람하게끔 하였다. 셋째, 한국어 연감과 사전은 전문 열람실에서 개가식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넷째, 온라인 한국어 데이터베이스는 구내 정보통신망을 통해 오픈된 열람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원거리 방식으로 열람 가능하다.

중국 국가도서관은 12차 5개년 계획 중 서비스 향상 및 개선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제

출하였다. 국민들에게 동등한 문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국 국가도서관은 이용자 학력, 직업 등의 제한요소를 취소하였다. 일반 이용자들은 신분증으로 무료 열람이 가능하고 일정 보증금 납부시, 무료로 한국어 도서나 문헌자료 대출이 가능하다.

한국어 문헌의 중요성과 보편성을 고려하여 중국 국가도서관은 한국어 소장자료 구축 시 사회 각 계층 이용자들이 문헌 수집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였다. 특히 외국어대학교의 한국어 교수나 한국 문제연구기관 등에 일정한 참여 권리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중요한 자료나 가치 있는 한국어 도서를 추천하도록 하여 그 소장자료의 품질이나 대출 수준을 제고하였다. 또한 이용자들은 중국 국가도서관 온라인열람목록(OPAC) 색인시스템(<http://www.nlc.gov.cn/>)에 등록하여 관내 정보통신망 혹은 인터넷으로 한국어 문헌 검색이 가능하다. 중국 국가도서관 정보서비스관리부서는 이용자들의 보다 편리한 검색을 위해 특별히 한국어 입력법을 설치하여 한국어가 가능한 이용자들이 스스로 필요한 문헌 검색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일부 한자로 된 문헌의 제목이나 작가 혹은 출판사 등은 MARC포맷 구축시 “한자-한국어” 대응으로 한자검색에 필요한 문헌의 기본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중국 국가도서관은 중국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한국어 자료의 수집 및 서비스와 함께 외국어 문헌소장과 연구를 주요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현재 외국어신착도서열람실은 영어 문헌, 러시아 문헌, 일본어 문헌 등 소장량이 풍부한 신착도서만 열람 가능하다. 한국어로 된 신착도서는 소장량 부족 등의 이유로 폐가열람만 가능하다. 향후 우리는 다방면에서 노력하여 외국어신착도서열람실에 한국어 도서 전문 열람 코너를 신설해 볼 계획이다.



그림 5 참고서 열람실에서 진열한 한국어 사전

중국 국가도서관의 서고가 현재 리모델링에 들어가 일부 외국어 도서들을 포장하여 보관하고 있다. 이것 역시 외국어도서 대출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리모델링 공사

는 2013년에 끝날 계획인데 그 때 각종 한국문헌의 대출 서비스도 전면 재개할 것이다.

3.6. 한국어 문헌 관련 업무추진

3.6.1. 디지털화

2011년에 오래된 스페인어, 일본어, 러시아 문헌의 종이 카드 목록을 디지털 MARC 포맷으로 업데이트 후, 2012년부터 한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도서 등에 대해 MARC 포맷으로 업데이트 작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2012년에 중국 국가도서관은 본 업무를 외부업체에서 의뢰하여 2012년 9월말까지 한국어 문헌 종이카드목록 1만3천5백 여 권을 처리하였다. 본 업무는 계획에 보다 3개월 앞당겨 완성되었으며, 현재 중국 국가도서관에 소장된 모든 한국문헌은 온라인열람목록(OPAC)을 통해 검색 가능하다.

3.6.2. MARC포맷 다운로드

현재 중국 국가도서관의 한국어 도서 MARC 포맷 편집 작업은 기존의 규칙을 기반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 확정된 동아시아어 문헌 목록편집방침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본 도서관의 실제 상황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국 국가도서관은 Z39.50프로토콜을 통해 국내외 데이터 교환을 하고있다. 하지만 업로드와 다운로드 시에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매달 MARC 포맷 편집수량의 부족으로 한국어 MARC 포맷 다운로드 작업은 다량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건별로만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목록편집 작업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RDA의 세계적 사용으로 한국어 도서 목록편집 개혁은 반드시 수행돼야 할 업무이다. 앞으로 중국 국가도서관은 한국어 문헌 목록편집 업무의 표준화 이외에 한국 및 세계적 범주에서 한국어MARC포맷 발전 추세도 연구해야 한다. 이는 향후 한국어 문헌 목록작업을 더 활발히 진행하기 위함이다.

4. 중국 국가도서관 한국어 문헌 사업의 전망

4.1. 신세기 한국어 문헌 사업의 도전과제

4.1.1. 한국어 문헌 구입 및 목록화 작업

한국어 문헌 구입 시에는 다른 언어권 문헌 구입 시보다 도서관매업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 더 적다. 따라서 구입 담당 사서가 구입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현재 영어, 러시아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문헌 수집 사업은 고도로 발달된 정보화 및 통합화 과정을 맞이함과 동시에 도서 수출입 업체에서 직접 목록수집, 주문제작, 신착도서등록, 등록 이후의 처리작업 등 부가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이는 사서가 번거로운 업무에서 벗어나 도서 선정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구입 문헌의 수준과 품질을 향상시킨다. 이에 비해 한국어를 포함한 기타 비 통용어 문헌은 사서가 구입 문헌을 선정하고 목록작업 하는 과정에서 도서 수출입업체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업체에는 한국어가 가능한 전문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한국어 문헌 구매시 업체에 그 어떤 서비스도 기대할 수 없다. 현재 개별 수출입 업체는 판매한 도서에 대응하는 리스트 마저 만들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한국어 문헌 선정 수집 사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비합리적인 공급방식으로 인해 구매가가 실제가격을 훨씬 초과하고 문헌 구매 비용도 따라서 급등하고 있다. 현재 중국 국가도서관은 외국 문헌 구매 시 공개입찰 방법을 실행하고 있다. 즉 종합실력이나 신용도가 높은 도서 수출입 업체를 선정하여 그들이 대신 외국 문헌을 구매하게 한다. 한국어 등 비 통용어 문헌의 매년 구매량과 구매액은 영어, 러시아어, 일본어 등 문헌과 비교할 경우 아주 적은 양을 차지한다. 실제 계약할 때, 한국어 문헌 구매량은 거의 만족하기 어렵다. 일부 동아시아 국가의 문헌 구매도 같은 상황이다. 또한 수출입 업체에 한국어가 능통한 담당자 부족 등으로 인해 한국 현지 출판업 상황의 이해가 불충분하고 구매방법이 단일화되어 있어서 실제 구매가격 보다 훨씬 비쌀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많은 취약점을 안고 있다.

4.1.2. 담당 사서의 전문 지식 제고

사서는 학술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학문에 대한 끈임없는 탐구와 노력으로 자체 지식 수준은 향상시킬 수 있지만 개인적인 취미와 성장환경 등의 영향으로 수집 담당 사서가 문헌 선정 수집 시, 자신의 주관과 취향을 배제시키는 것은 어렵다. 문헌 수집 담당자가 의식적으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지만 학문 지식의 부족으로 문헌 수집이 완벽할 수는 없다. 특히 어학 전공 출신 사서가 한 명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영어권, 일본어, 러시아어 등의 문헌들을 예로 들면, 규모가 큰 도서관은 평균 몇 십 명에 이르는 언어권별 전문 수집사서를 두고 있다. 인원 수가 많으면 한 개인의 주관적 편견을 해소해주

는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사서 개인의 시야를 더욱 넓혀준다. 하지만 비 통용어 문헌 수집 담당자는 대부분이 외국어대학교 언어학과 출신으로 수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다른 영역의 지식에 대한 인식정도나 상대방 나라의 사회, 정치, 문화 등에서 이해력, 분석력이 뛰어난 전문인재로 성장하기 어렵다. 이에 는 담당사서의 장기간 숙련이 필요하다.

4.2. 신세기 한국어 문헌 사업의 향후 계획

4.2.1. 인재 양성과 사회 자원봉사자 체계의 보완

외국 문헌, 특히 비 통용어 문헌 사업은 모두 “인재”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모든 단계에서 사회 각계 각층의 인재가 필요하며, 도서관 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사회에서 한국어 문헌 수집 및 목록 구축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또한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 도서관 내의 자료 수집 및 목록 전문가들을 발굴하여 동원해야 하며, 언어 능통자에게는 수집과 목록 등의 도서관 전문 지식을, 사서에게는 언어적 소양을 갖추 수 있도록 교육하여 언어 능력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인재로 성장하게끔 이끌 것이다. 현재 중국 국가도서관은 북경외국어대학교, 북경 제2외국어대학교 등의 대학교와 협력 관계를 통해 교수로부터 수집 도서 추천을 받고 도서관은 재학생들에게 인턴십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4.2.2. 외부와의 소통과 사업 혁신의 이념 강화

오랫동안 중국 국가도서관은 한국어 문헌을 종적 발전의 관점에서 관리해왔다. 장서관리 개념과 방식은 대부분 자체 개발됐기 때문에 외부 기관과의 의사소통이 부족하였다. 하지만 이것이 몇 십년 동안 쌓아온 자체 경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외국어대학교는 장기간의 외국어 교육으로 외국 문헌의 학술적 가치에 대한 정확한 판단능력을 자랑하며, 독자(주로 교수과 재학생)의 구미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외국 관련 연구기관의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수집 담당 사서들은 관련 학술 분야의 전문가이며, 따라서 책을 편집하고 책의 문학적·학술적 가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 훌륭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향후 도서관은 외부와의 교류를 통해 더 많은 정보와 동기 부여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아울러 더 큰 범위에서 전국 도서관과 성공적인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

서 중국 내 모든 도서관에서 한국어 문헌 수집 및 목록구축 사업이 가속화되고 한국어 문헌의 소장 능력이 강화될 것이다.

4.2.3. 한국어 문헌 평가 시스템과 이용자 추천제도의 건립

중국 국가도서관 한국어 문헌 수집 및 목록 업무 능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이용자들에게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동아시아언어 문헌의 평가 시스템과 이용자 추천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2012년은 동아시아 언어 문헌 업무에 있어 중요한 해이다. 비 통용어 문헌 담당 사서가 전면 채용되고 예전의 종이카드목록이 지속적으로 디지털화 되고 있는 상황을 잘 활용하여 중국 국가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동아시아 언어 문헌에 대해 심도 깊은 연구를 수행하고 문헌 자원 중 가장 취약한 부분을 개선하여 대폭 강화시켜야 한다. 이는 중국 국가도서관 미래 발전에서 있어서 튼튼한 기초가 될 것이다.

중국 내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서관의 장서를 살펴보면, 특히 외국어(동아시아 언어) 장서의 경우, 이용자 추천으로 수집되는 장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도서관에 동아시아 언어 문헌 전문 담당 사서가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대출 건수가 전체적으로 낮은 동아시아 언어 문헌의 경우, 수집 규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추천된 자료를 수집하여 자료 이용률을 높여 주어야 한다. 이는 소장자료의 실제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 사상의 실현이기도 하다.

4.2.4. 한국어 문헌의 특성을 잘 활용하여 수집 사업 강화

통용어언 문헌과 서양문헌에 비해 한국어 문헌을 필두로 하는 동아시아 문헌은 보다 복잡하고 특수하다. 이는 문헌 수집 작업에 있어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도서관에서 동아시아 문헌이 가장 빛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은 거리적으로 중국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중국에 대한 출판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 최근 중국 국가도서관에 소장된 한국어 문헌 중 “중국학”에 대한 문헌의 비율이 거의 17.6%를 차지하고 중국 역사, 문화, 정치, 경제 등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다. 이 자료는 중국 역사, 시사문제, 그리고 한중 관계 연구에 있어 귀중하다고 말할 수 있다. 향후 중국 국가도서관 수집과 목록구축 사업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중국 국가도서관은 한국에 있는 중국학 연구기관, 출판사, 그리고 학자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고 시스템화하여, 중국학에 대한 한국어 자료 수집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5. 맺는말

문헌은 한 나라, 한 민족의 흥망성쇠를 기록하고 또한 서로 다른 나라의 국민들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준다. 중국 국가도서관의 한국어 관련 서비스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향후, 우리는 더 큰 노력으로 중국 이용자들에게 객관적으로 한국을 홍보하고 한중 교류의 창구가 되어 양국의 우정을 기록한 귀중한 문헌 소장처가 될 것이다.

부록 1 :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기증한 주요 중국학 도서 목록

서명	저자	출판년
한·중·일의 해양인식과 해금	이문기 외	2007
근대 만주 도시 역사지리 연구	유지원 외	2007
아시아의 발칸, 만주와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 정책	백준기 외	2007
고구려 불상과 중국 산동 불상	문명대 외	2007
발해 5경과 영역 변천	한규철 외	2007
중국의 청사공정 연구	정혜중, 김형중, 유장근 지음	2008
중국학계의 북방민족·국가연구	정병준 외	2008
근대 중국 대외무역을 통해 본 동아시아	홍성구 외	2008
중국의 영토분쟁	이동률 외	2008
19세기 동북아 4개국의 도서분쟁과 해양경계	이근우 외	2008
중국 화하 변경과 중화민족	왕명가 지음 ; 이경룡 옮김	2008
요동군과 현도군 연구	서영수 외	2008
중국 문명탐원공정과 선사고고학 연구현황 분석	박양진 외	2008
다민족 국가의 통합정책과 평화정착의 문제	문형진 외	2008
고고학으로 본 옥저문화	강인옥 외	2008
중국 학자들의 소수민족 역사 서술	강현사 외	2008
하상주단대공정 :중국 고대문명 연구의 허와 실	김경호 외	2008
중국의 '지역문명 만들기'와 역사·고고학자료 이용 사례 분석	김진우 외	2008
근대 만주자료의 탐색	한석정 외	2009
중국 '동북공정' 고구려사 연구논저 분석	조인성 외	2009
동북아 활쏘기 신화와 중화주의 신화론 비판	이평래 외	2010
요하문명의 확산과 중국 동북지역의 청동기문화	이청규 외	2010
동북아 중세의 한족과 북방민족 :최근 중국 학계의 연구동향과 그 성격	이근명 외	2010
외국학계의 정복왕조 연구 시각과 최근 동향	윤영인 외	2010
한·중·일의 전쟁유적과 동북아 평화	동북아역사재단 엮음	2010
중국의 청사 편찬과 청사 연구	김형중 외	2010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현황과 특징	김지훈 외	2010
중국의 발해 대외관계사 연구	김중복 외	2011
중국 역사교과서의 통일적다민족국가론	김중박 외	2011
한중관계사상의 교통로와 거점	윤재운 외	2011

부록 2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기증한 주요 중국학 도서 목록

서 명	저 자	출판년
FTA 금융서비스 협상을 대비한 전략과 과제: 금융서비스 경쟁력 추정과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金準東 外	2003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鄭仁敎 外	2003
대만기업의 對중국 투자 현황과 전략: 결론: 대만경제에 대한 영향	魏艾·范錦明·趙顯竣 지음	2003
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한·중·일 FTA에의 시사점	申寬浩 外	2003
한·중·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姜文盛 외	2003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성장 효과	李洪植 외	2004
한·중·일 분야별 경제협력의 현황과 발전방향	李昌在 外	2004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南英淑 외	2004
2003년 한·중·일 FTA 협동연구 총괄보고서	鄭仁敎 外	2004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趙明哲 외	2005
중국의 산업고도화 및 기업성장의 현황과 시사점: 중국 위협의 재평가	池晚洙 외	2005
중국의 기술산업화 모델 및 전략	朴勝贊	2005
중국의 비즈니스환경 변화와 외자기업의 대응전략	朴月羅 외	2006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李章揆 외	2006
중국 방송산업 현황과 진출전략: TV 시장과 규제를 중심으로	여지나	2006
한·중 금융·물류 허브 경쟁과 한국의 선택: 빈하이신구 확대 개발에 따른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정형곤 외	2007
중국의 대북미 외교안보정책과 통상전략	주재우, 김민수	2007
주요 선진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현황과 통상전략	최의현, 김완중	2007
한·중·일 3국의 하이테크 제품 교역 특징 및 수출경쟁력 패턴 분석	방호경	2007
한·중 교역 특성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양평섭 외	2007
한·중·일 3국의 FTA 비교분석과 동북아 역내국간 FTA 추진방안	최낙균, 정형곤, 김한성 지음.	2008
중국 소비시장의 특징과 진출전략	지만수 외	2008
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규정 비교: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조미진, 여지나, 김민성	2008
중국의 금융산업 현황과 교역장벽분석: 한·중 FTA 대비	李昌英	2008
FDI 결정요인 분석에 따른 한·중·일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경쟁력 비교	정형곤, 이성봉, 나승권	2009
중국의 유통서비스업 현황 및 활용방안: 소매유통을 중심으로	이승신 외	2009
중국의 경기순환 및 거시경제정책: 구조적 특징과 시사점	지만수, 박월라, 이승신	2010
(2010년 대중국 종합연구) 중국의 미래 내수시장 형성전략과 시사점: 중부지역의 4대 도시군 형성전략을 중심으로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편	2010
한·중·일 역내 직접투자 동향과 활성화 방안	정형곤 외	2010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미·중 경제관계	이장규 외	2010
중국의 대외원조정책과 추진체제	권율, 박수경	2010

History, Present and Future of Korean Publications in the National Library of China

Yushi Wang *

1. Foreword

Apaced with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heightened international status of South Korea, a blend of traditional and modern Korean culture grown ever more popular worldwide in recent years and Korean publications are arousing an increasing amount of attention around the world. Korean publications are now among the priority collections for many large libraries. As the largest base of foreign publication collections in China, the National Library of China holds the greatest number of Korean publications in the country, including books, periodicals, electronic resources, Internet databases and more, totaling more than 30,000 items. These valuable publications play an important role in creating an objective and accurate understanding of Korea among domestic Chinese readers. This report will begin with the introduction of three aspects of Korean publications the National Library of China, the history, current situation and prospects. We hope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and awareness of Korean publications in the National Library of China; deepen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nd exchange among institutions, scholars and librarians working in the field of Korean publications; and further improve the quality and standards of overseas Korean publication collections.

* Librarian, Foreign Language Publications Acquisitions & Cataloging Department, The National Library of China

2. History of Korean Publications at the National Library of China

2.1.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Library of China

The National Library of China serves as the repository of the nation's publications and a national bibliographic center, as well a national center for the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 of ancient books. The primary mission of the NLC includes: the collection and preservation of domestic and foreign publications; national coordination of document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 work; provision of information and reference services to the central government, other governmental organizations, social organizations, and the general public; research in library sciences and the development of library services and programs and guidance to other libraries in China through its expertise; the fulfillment of its role in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s through participation in the activities of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FLA) and other related organizations worldwide, as well as the promotion of exchanges and cooperation with other libraries, both in China and abroad.

The National Library of China has a long history. It developed out of the Metropolitan Library established in Beijing on September 9, 1909. The PRC's first Premier, Zhou Enlai, proposed and obtained authorization for the construction of a new building for the library, located on Baishiqiao Road in Beijing's western suburbs. In 1987, when the new edifice was completed, Deng Xiaoping authored the calligraphic inscription for the library's nameplate. On December 12, 1998, the State Council approved its renaming as the "National Library of China." Then-President Jiang Zemin wrote the inscription for the new name on April 16, 1999. The construction of a second modern phase incorporating the latest in digital technologies was completed in June 2008 and opened to the public on September 9, 2008.



Fig 1 National Library of Ancient Books, Wenjin Street, Beijing



Fig 2 Southern Area of NLC



Fig 3 North Area of NLC, National Digital Library of China

As the third-largest national library in the world, the area of National Library of China spans over 250,000 square meters in its three components—the Wenjin Street district in the architectural style of the Ming and Qing Dynasties (30,000 square meters), the southern area of the Main Library on Baishiqiao Street, Beijing, reflecting Han and Tang architectural styles

(140,000 square meters) and the modern northern wing of the Main Library (80,000 square meters). The National Library of China has become an online knowledge center and information service base transcending the constraints of time and space and combining tradition and modernity. It is also the world's largest collection and provision center for Chinese publications, the largest domestic collection and provision center of foreign publications in China, and one of the largest and most advanced national libraries in the world.

The National Library of China safeguards vast and comprehensive holdings, including extensive collections in foreign languages and a great number of historical works. As of 2011, the NLC's collection totaled 29,940,000 volumes and artifacts. It is renowned for its collection of ancient and rare materials. The NLC houses 270,000 rare records and 1,640,000 ancient records. The most valuable collections are the inscriptions on animal bones and tortoise shells originating in the Shang Dynasty (Oracle Bones), Dunhuang Manuscripts, the *Zhaocheng Tripitaka of the Jin Dynasty*, the *Yongle Encyclopedia*, and the *Complete Library of the Four Branches of Literature*. Among its earliest editions in foreign languages are incunabula printed in Europe from 1473 to 1477. The National Library of China comprehensively collects all available books in Chinese. Books in 115 foreign languages constitute a full half of the overall collection, making the library the largest collector of foreign publications in the nation. The NLC also hosts special collections of manuscripts from notable authors, documents on revolutionary history and doctoral dissertations in China. It is also one of the depository libraries for publications by the UN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well as foreign governments. With the development of various new types of information media, the NLC has also begun collecting a greater portion of electronic publications. As the national center for the interlibrary loan system, the NLC has established ties with 558 libraries within China, dealing with an annual average of 30,000. It has also formed partnerships with 557 libraries in 117 countries and regions for the exchange of publications.

There have been positive cooperative relations and business relationships between the National Library of China and libraries in Korea. In May 1997, the NLC signed a cooperation agreement with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Since then, 15 business communications have been held and a regular librarian exchange system has been established, all of which has blossomed as an in-depth mutual understanding.

2.2. Evolution of Korean Publications in the National Library of China

Korean publication service deployment at the National Library of China can be traced back to the early day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hen the Party and state leaders attached profound importance to the collection effort of publications of peripheral countries. In 1992, the Republic of Korea and China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Korean publication efforts experienced a second peak with the normalization of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increasingly closer economic and cultural exchanges. The Publication Culture Association of Korea, Korean Culture Center in China and other institutions presented a large number of high-quality books to the National Library of China, dramatically enriching the Korean publication collection at the NLC. Subsequently, however, a vacancy in the position tasked with Korean publications lasted for six years due to retirements and personnel changes. The collection supplement mainly relied on international exchanges and donations during this period, with some additional acquisitions of basic yearbooks as long-term orders. Korean publication work was sluggish. The department recruited specialized staff in charge of Korean publications in 2006. In 2007, the cataloging of Korean publications progressed from the era of paper card catalogs to a digitized catalog, and gradually to the proper track through the nearly six years of development since then.

3. Current Status of Korean Publications in the National Library of China

3.1. Staffing Stru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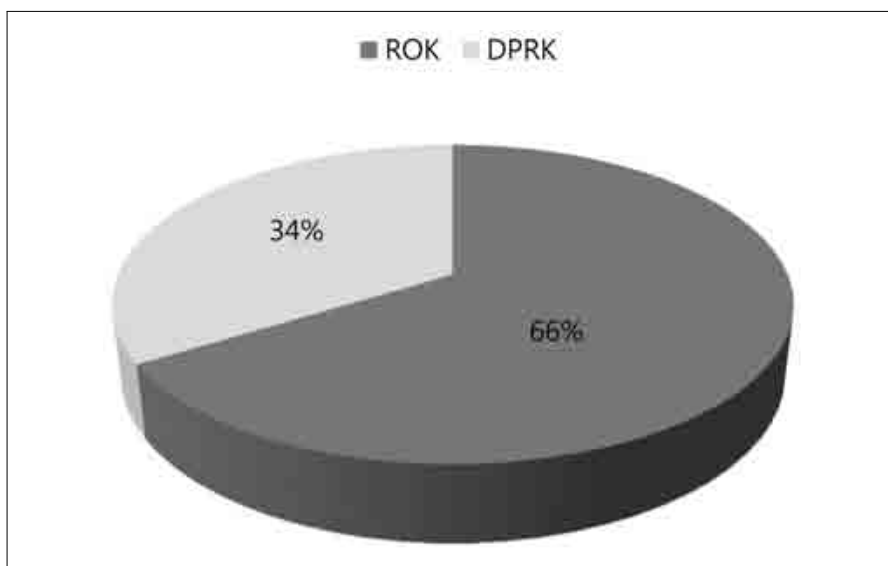
At present, there are four sections involved in Korean publication efforts at the National Library of China. These are the Acquisitions and Cataloging Section of the Eastern Language Books, Acquisitions and Cataloging Section of Foreign Language Newspapers and Periodicals and the International Exchange Section that pertains to the Foreign Language Publications Acquisitions & Cataloging Department, and Minority Languages Publications Section under the NLC Ancient Books Library. The main tasks of the Acquisitions and Cataloging Section of Eastern Language Books include Korean Studies publications, audiovisual resources and a portion of the irregularly ordered journals. The main tasks of the Acquisitions and Cataloging

Section for Foreign Language Newspapers and Periodicals include subscription journals and a handful of Korean databases. The Periodicals and International Exchange Section is responsible for the exchange of Korean publications with foreign libraries and related organizations. The Minority Languages Publications Section is responsible for collecting Korean publications in China. Each of the four sections retains a specialized division librarian of Korean nationality or specialized in Korean, with the librarian in the Acquisitions and Cataloging Section of Foreign Language Newspapers and Periodicals also in charge of Japanese serials.

3.2. Analysis of Korean Books in the Collection

Among the Korean books in the collection of the National Library of China, more than 12,000 were published in the Republic of Korea, accounting for 66 percent of total collections, with some 6,000 examples stemming from the DPRK, making up the remaining 34 percent. However, most books from the DPRK were published in multiple volumes and have more copies, so their total volume is a bit larger than that of ROK publications.

Chart 1 Comparison of ROK and DPRK books collected by NLC



Korean materials held by the National Library of China have undergone two peak periods, namely the 1950s and from the 1980s to the present, which reflects the historical background.

Chart 2 Collection of books over 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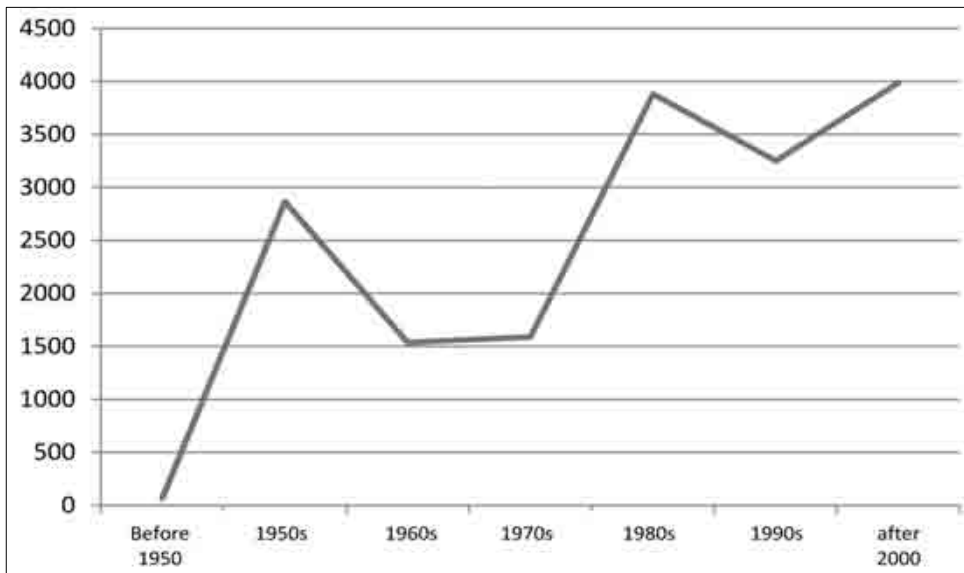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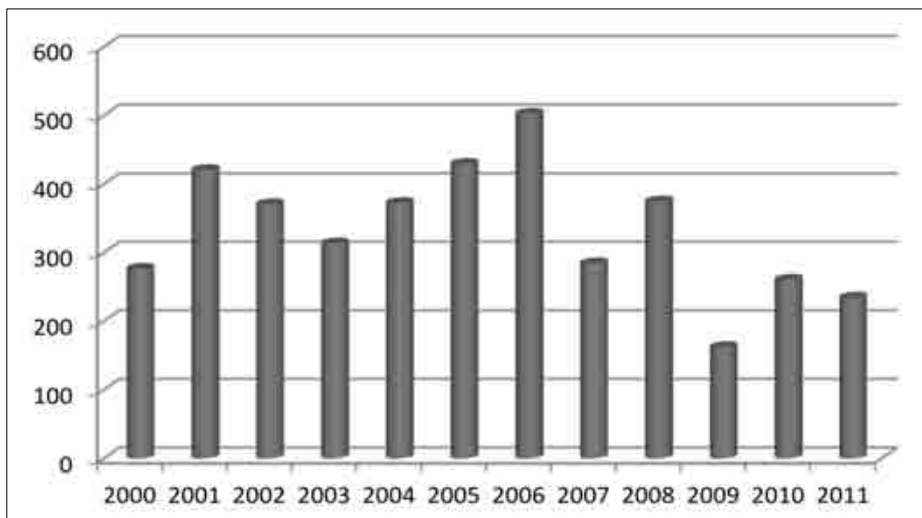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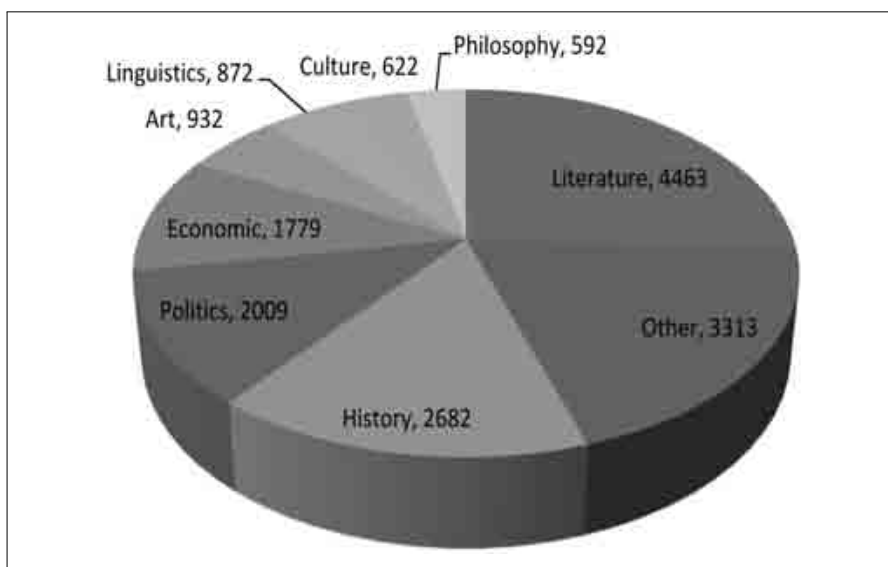


Chart 3 Collection of books since the year of 2000



In terms of categories by discipline, works of literature contribute the largest proportion, totaling 4,400 volumes. Other fields that account for considerable shares are history, politics, economics, art, linguistics, culture, and philosophy. Their respective proportions are seen in the following table.

Chart 4 Disciplines proportion of the Korean books which collected by NLC



The following features are suggested by an in-depth understanding and analysis of the Korean publications in National Library of China:

A. The initiation of acquiring Korean publications

The earliest acquisitions of Korea publications began soon after the found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hen the Acquisitions Section of Publications—the predecessor of the Foreign Language Publications Acquisitions & Cataloging Department was established. A language advantage on the part of the director laid the founda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Korean publication acquisition. Since that time, there have been specialized division librarians of Korean nationality or specialists in Korean language in charge of acquisition and cataloging of Korean publications, thus ensuring business continuity. The principle of foreign acquisition was established early in the history of the National Library of China and it has been encouraged to intensify its acquisition of foreign publications, especially those from neighboring countries. Korean publication collections in the National Library of China have an average chronological distribution. The earliest books can even be traced back to the 1930s and are very useful for the study of the histor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science of editions.

B. Diverse sources and material formats

Compared to other eastern-language books, Korean publications have a wider variety of resources and formats. The acquisition of resources includes international exchanges and donations as well as annual quantitative procurement. The types of publications span books, periodicals, electronic resources and other mainstream forms of library collections. In addition to the regular perennial donation of publications from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d Foreign Economic Polic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the National Library of China maintains a stable international exchange relationship with the National Central Library and the Library of Congress of Korea. The volume of the annual exchange of books has reached immense proportions and shows an increasing annual trend.

C. Books and periodicals published by the DPRK

Due to historic and political considerations, only a limited number of publications from the DPRK have to date been collected outside that country. Prior to 1992, the National Library of China housed a large number of books and periodicals published by the DPRK, most of which were presented as gifts by such DPRK institutions as the Grand People's Study House. Since 2011, the National Library of China has re-launched a DPRK book exchange and purchase program. To date, its total collection of DPRK books and periodicals has grown considerably. These publications provide precious materials for researchers in fields like the histor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DPRK literature. Even many Republic of Korea scholars come to the National Library of China to explore these materials.

3.3. Korean Book Acquisition and Cataloging

3.3.1. Acquisitions

With the broadening of acquisition channels and steady increase of acquisition budgets, Korean collections in the National Library of China have witnessed stable growth. In its 12th Five-Year Plan, the library clearly states that it will enhance its collection of foreign-language books and focus on the collection and structural adjus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publications, while continuously increasing the collection volumes of foreign-language books in

fields of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t also plans to supplement its collections concerning overseas China studies, law, and other important academic disciplines, thus forming a foreign-language collection that spans the complete range of disciplines and languages and features mutual complementation between printed and digital resources and between tangible and online resources. For example, its collection of Korean books has annually increased by 1,600 volumes, of which 1,000 were purchased and the remaining 600 acquired through international exchange or donation by Chinese and overseas collectors. Because the Republic of Korea annually publishes a great number of books (approximately 40,000 volumes, half of which meet our library's collection requirements) and no Chinese book importers and exporters are able to provide satisfactory acquisition catalogs, our library's clerks responsible for Korean book acquisition must access relevant information via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s OPAC system, KOLIS National Information Common Cataloging System, and the websites of major online booksellers, and then prepare orders and conduct duplicate checks.

3.3.2. Cataloging

Presently, our machine-readable catalogs of Korean books increase annually by approximately 1,000 entries, most of which are original catalogs. The National Library of China uses Western-language cataloging standards to catalog all of its foreign-language collections, which is performed in the ALEPH system according to MARC21 cataloging rules. It currently applies the latest version of Classification Methods for Chinese Libraries in order to classify its book collections. So far, the library has yet to introduce the Republic of Korea's subject headings, so it is required to use the headings provided by Korean libraries for reference in the course of cataloging. In view of the global popularity of RDA and the specialization of non-

控制号	001	001327450
日期和顺序	005	20070105160644.0
定长数据	008	060726s2002~~~~ko~abe~~~~000^0^kor^^
ISBN	020	a 8986903326 ; c 8,800원
编目来源	040	a CcB\ISG
语言代码	041	1 a kor b chi
本地索取号	090	a 1267.1
主题名	245	00 a 그치그래 / c 주어용연(崔永元) 지음 ; 리동혁 옮김, b 도서
变异题名	246	33 a 그치그래 ; b 중국 최고 인기 MC의 중국 선택
出版项	260	— a 서울 ; b 권도, c 2002.
载体形态	300	— a 312 p. ; b 양도, 지도, 사진 ; c 22 cm.
一般附注	500	a 원서명 ; 不冠如此.
一般附注	500	a 원저자명 ; 崔永元.
附加-个人	700	1 b 880-01 a 崔, 永元, d 1963- c 880-02 a 리, 동혁, d 1967-
附加-个人	700	1 b 700-01/\$1 a 4, 영진, d 1963- c 700-02/\$1 a 李, 永赫, d 1967-
其它图形式	880	1 b 700-01/\$1 a 4, 영진, d 1963- c 700-02/\$1 a 李, 永赫, d 1967-
其它图形式	880	1 b 700-01/\$1 a 4, 영진, d 1963- c 700-02/\$1 a 李, 永赫, d 1967-
所有	099	— a DB205
本地索取号	096	— a 1267.1

Fig 4 NLC Cataloging system—ALEPH

universal language book searching, it is imperative to introduce subject headings indexing to the Korean collections, which will be among our major tasks in the future.

3.4. Special Korean Collections – Books on China Studies

Following the principle of collecting Chinese materials as completely as possible and foreign-language materials as perfectly as possible, the National Library of China has intentionally carried out Korean book acquisition to reflect the substantial historical and cultural ties between China and Korea.

Since ancient times, China and Korea have enjoyed close ties. A large number of the books published in Korea address studies of the Sino-Korean relationship and have considerable value in research in China-related academic fields and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a sense, Korean books on China studies are extensions of Korea studies in China's related academic realms.

The National Library of China attaches great importance to the academic value of foreign-language books on China and places them at the top of its collection lists. In addition, it uses special markers when cataloging such books in order to allow readers to search for them with greater convenience. As an illustration, 17.6 percent of Korean books that the library collected after 2006 are addressing China studies, a ratio higher than that found in any other foreign-language collection. Their contents extend across almost all disciplines of the social sciences, such as Chinese history, politics, economy, culture, languages, and literature. In our next phase, we will further enhance our collection of Korean books on China studies, and cooperate with other departments to compile and publish catalogs and abstracts of China studies works published in major countries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Meanwhile, we will expand the use of those Korean books on China studies so that they will be easily accessible to colleges,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ions.

Note: In the appendices is a catalog of prominent Korean books on China studies published by two research institutions of special concern to the National Library of China.

3.5. The Servicing and Utilization of Korean Materials

Currently, the Korean literature and resources available to readers can be classed into four categories: First, books published by both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over the past two decades, which are served on closed shelves; Second, Korean periodicals published over the last three years, which are served in open shelves, and Korean periodicals published prior, which are served on closed shelves following compilation and binding; Third, Korean annals and reference books that are served on open shelves in specific reading rooms; Fourth, online Korean data open to intranet users, which are also accessible to remote authorized readers via the Internet.

In its 12th Five-Year Plan, the National Library of China identified a clear requirement to strengthen its services. In order to satisfy readers' demands for Korean materials, it provides free loan of Korean books and audio-visual materials published over the past 20 years and in-house reading of those published earlier. Moreover, to serve a wider range of readers, the library abolished previous restrictions on readers' levels of educational attainment and vocational titles. After showing a valid ID card, a first-time user can complete an application for a borrower's card via one of the self-service kiosks and then borrow Korean materials from the collection for free on the condition that he or she provides a predetermined security deposit.

In view of the importance and universality of Korean materials, the National Library of China has encouraged readers to take an active part in the selection and purchase of Korean books when it gathered its Korean collections. It also consulted with professors at foreign studies universities and Korea-related research institutions and invited them to recommend significant and useful Korean works. In this manner, it has not only enhanced the quality of its Korean collections, but also accelerated to a certain extent the circulation of recommended Korean materials.

Readers are able to log on to the library's OPAC system (<http://www.nlc.gov.cn>) via the intranet or Internet and search for the Korean materials they seek. All computers used for book searching in the library's Information Service Department are installed with Korean Input Method to allow readers to search with ease for the Korea resources they require. For those with titles, authors, or publishers recorded in Chinese, readers may pursue their information by

directly inputting Chinese keywords with the help of Chinese-Korea mapping technology.

Because it is categorized as a “state-class representative library,” the National Library of China focuses on Chinese books while dedicating itself to the collection and research of foreign-language materials. New English, Russian, and Japanese books with abundant deposits are available in the New Foreign-language Books Reading Room. However, new Korean books are simply served on closed shelves, negatively impacting the borrowing volume of Korean materials. The next step taken by the library is to leave a set space for Korean books in the New Foreign-Language Books Reading Room.



Fig 5 Korean dictionaries placed in the reading room

The library’s general book warehouse is currently undergoing refurbishing and reconstruction. For this reason, some books in the collection are currently sealed away for safekeeping, which can result in some inconvenience for readers seeking to borrow foreign-language books. When the refurbishing and reconstruction project is completed in 2013 as scheduled, all services concerning Korean materials will be fully resumed.

3.6. The Evolution of Korean Materials Services

3.6.1. Retrospective Database Building

In 2011, the National Library of China completed retrospective databases (digitalization) for

the card catalogs of old Spanish, Japanese, and Russian books in its collection. In 2012, it began to build retrospective databases for card catalogs of old Korean, Vietnamese, and Mongolian books. By the end of September 2012, it had digitalized more than 15,000 items from card catalogs of printed Korean materials, and completed all retrospective databases three months earlier than scheduled. It plans to have all of its collections accessible and connectable to databases after the refurbishing project of its general book warehouse is finished. At that time, all Korean materials in collection will be available for internet users to search and preview through the library's OPEC system.

3.6.2 MARC Data Download

Presently, the bulk of Korean books held in the National Library of China are still cataloged according to the original cataloging method. This is mainly because our original cataloging data were subject to the Eastern Library Cataloging Rules formulated in early years of the library's history, according to which some practices and fields are unique for the sake of the library's actual conditions. For this reason, certain incompatibility may occur when data are uploaded or downloaded in the cour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data switching based on Z39.50 Protocol. In addition, only a limited number of Korean books are cataloged each month, so we have never launched batch download and filing of Korean MARC data. However,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cataloging integration and combination and the upcoming spread of RDA around the world, it will be inevitable to apply batch download and filing for Korean books when the Korean materials are cataloged. Next, besides researching the standardization of Korean books cataloging, we will also pay attention to the trends of Korean MARC data in the ROK and other countries, so as to better carry out the cataloging of Korean books in our collection.

4. The Prospect of Korean Collection in the National Library of China

4.1. Challenges of Korean Collection Management in the New Century

4.1.1 Purchasing and Cataloging Korean Books

In terms of book purchase, Korean book dealers are unable to share our burdens as do

Spanish, Russian, and Japanese book dealers. The majority of the purchase work is undertaken by acquisition librarians alone.

Against a backdrop of literature acquisition facing a high-degree of informatization and integration, book importers and exporters usually provide extended services with respect to catalog gathering, MTO production, book arrival registration, and post-processing, so as to enable acquisition workers to shake off trivial, arduous tasks, and concentrate on catalog sifting. This will guarantee the quality of purchased books. Contrarily, the purchase of books in non-universal languages, including Korean, is mainly completed manually by acquisition librarians. Usually, book importers and exporters are unable to maintain Korean-speaking clerks dedicated to Korean book purchasing, resulting in their extremely limited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The books purchased via some book importers are not even equipped with relevant lists, resulting in unnecessary difficulties in Korean book acquisition.

Due to unsmoothed supply channels, the purchase prices of Korean books are much higher than their actual prices, causing purchase costs to soar. Currently, the National Library of China purchases foreign-language books via unitary bidding and tendering. That means the library selects several large and well-reputed international book traders to purchase foreign-language books for it. The purchase volume and body of publications in non-universal languages like Korean are incomparable to those of Spanish, Russian, and Japanese books. Thus, the purchase contracts of Korean books can only attract less interest and attention from book traders. Books of other Asian languages are facing a similar situation. Additionally, those book traders lack Korean-speaking employees and know little about the Republic of Korea's publishing industry, which results in the simplified purchase channels and high purchase prices of Korean books.

4.1.2. Improving Librarians' Expertise and Making Consistent Efforts

The number of acquisition librarians cannot grow sharply over a short period because they need time to accumulate sufficient trans-disciplinary awareness. Although an individual can enrich and improve knowledge and skills through tireless study, the influence of such factors as personal temperament and living environment cannot absolutely be purged. Therefore, it is inevitable for acquisition librarians to retain more or less subjective judgment in the course of purchasing books

and demonstrate a preference for their favorite disciplines and fields. Even if they deliberately maintain a balance between disciplines, it remains difficult to achieve a perfect result in book selection due to the fact that they may lack knowledge related to certain disciplines. Such a situation will become even more notable when there is only a single acquisition librarian. Typically, a large library is equipped with several to a dozen acquisition librarians dedicated to the selection of books written in Spanish, Japanese, Russian, and other major languages, which are able to make up for the imbalance between different disciplines caused by one individual's subjective preferences and enrich the scope of selection. However, not only are acquisition clerks dedicated to books in non-universal languages extremely limited in number, but the majority of them were also foreign language and literature majors at college and find difficulty mastering multi-disciplinary awareness in only a short time. Furthermore, they require time to gain overall an understanding of the politics, social structures, economy, and culture of target countries.

4.2. Opportunities for the Korean Collection Management in the New Century

4.2.1. Enhancement of Cultivation of Human Resources and Social Volunteering System

In the end, the construction and servicing of foreign-language library collections, especially those in non-universal languages, depend on talented humans. The participation of human resources from all walks of life is necessary in every step of our work. For this reason, we will not only enhance the construction of our own Korean literature compilation work team, but mobilize and integrate a full range of professionals in the acquisition and compilation of Korean collections through searching the libraries at colleges and universities to help us efficiently fulfill relevant tasks in a short time. In addition, we will train our employees who had formerly specialized in either foreign languages or compilation to combined talents and build up a talent reserve pool. To date, the National Library of China has reached preliminary cooperation agreements on volunteer service with colleges and universities including Beijing Foreign Studies University and Beijing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according to which college instructors will recommend and select books for the library, and the library will in return provide internship positions to undergraduates in those universities related to the overall compilation process.

4.2.2. Enhancing Communication and Exchange with the Outside World and Innovating Management Concepts

For a long time, the management of Korean collections in the National Library of China has followed a linear development track. The majority of its management concepts and methods are self-developed, and it ignores communication with the outside world. This is not to deny the valuable experience that the library accumulated over the past decades. Grounded in their long-standing devotion to foreign language education, those foreign studies universities boast accurate judgment on the academic value of foreign-language publications and enjoy a full understanding of the specific demands of readers (mainly teachers and students at these schools). Most acquisition librarians at the libraries of foreign-concerned research institutions are experts in the relevant academic fields and thus maintain great advantage in the studies of the editions of books and in judging their literary and academic value.

In the future, through enhancing external communication, we can not only acquire more information and inspiration but also share our successful experience with our partners, so accelerating the development of Korean materials acquisition and compilation and enhancing the overall literature-guaranteeing capacity at all types of libraries throughout China.

4.2.3. Building up Korean Materials' Capacity Guarantee Assessment System and Reader Book Recommendation Mechanism

While enhancing its capacity in Korean materials acquisition and compilation, the National Library of China will also build up a capacity assessment system and reader book recommendation mechanism for books in Eastern non-universal languages. The year 2012 is crucial for the library's management of publications in Eastern non-universal languages. Currently, its non-universal-language books acquisition and compilation team has been reinforced and a retrospective database of original card catalogs is under construction. The library should take this opportunity to explore its weaknesses in the management of collected resources and correct them properly upon in-depth investigation of the Eastern non-universal language books in its collection. Such a move will generate far-reaching positive impacts on its future operations.

Through surveying world-renowned libraries' management of their collected resources, especially foreign-language books, it can be concluded that books recommended by readers

account for a large proportion of their total collections. Of course, this is partly because they lack sufficient employees dedicated to foreign-language book acquisition. For books in non-universal languages that feature low circulation and borrowing rates, increasing the collection of books recommended by readers according to relevant acquisition rules will, to a certain extent, enhance their usage and realize their value. At the same time, this is also an embodiment of the library's human-oriented service concept.

4.2.4. Strengthening the Construction of Specialized Korean Collections

Compared to books written in universal languages and Western non-universal languages, books in Eastern non-universal languages as represented by Korean are usually more complicated and distinct. Although this makes the job difficult, it is easy for library collections written in Eastern non-universal languages to become the most highlighted part of a library.

The Republic of Korea is adjacent to China, so there are abundant Korean publications addressing China. For instance, 17.6 percent of the Korean books that our library has collected in recent years relate to the study of China, covering a wide range of realms including history, culture, politics, and economy. They are precious materials for research into Chinese history, current affairs, and Sino-Korean relations. The collection of China studies books will be a special and vital part of future Korean book acquisition. We will survey and seek out the ROK's key research institutions, publishing houses, and scholars in the field of China studies, and further systemize and enrich our collection of Korean books focusing on China studies.

5. Conclusion

A library collection reflects a country or a nation's development and prosperity, and serves as a spiritual bridge linking peoples of different countries. The Korean collection in the National Library of China just plays such an important role. In the future, we will continue introducing the real Korea to Chinese readers, serving as a platform and window for Chinese-Korean exchange, and endeavoring to conserve the precious materials recording the friendship between China and the Republic of Korea.

Appendix 1 : List of important China studies books donated by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Title	Author	Imprint date
Perceptions of the sea and embargoes of Korea, China and Japan	Lee Mun Gi etc.	2007
Historical geographic study of the modernization process in Manchuria	Yu Ji Won etc.	2007
Russian foreign policy toward East Asia and the Manchurian question	Baek Jun Gi etc.	2007
Buddhist sculpture of Koguryo and the Shan–Dong province of China	Mun Myeong Dae etc.	2007
Changes in territory and the five capitals of Balhae	Han Gyu Cheol etc.	2007
Research of Qingshigongcheng by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eong Hye Jung etc.	2008
Modern Chinese foreign trade and the East Asian economy	Hong Seong Gu etc.	2008
China's territorial disputes	Lee Dong Ryul etc.	2008
Study on controversies over delimitation of sea sovereignty in Northeast Asia in the 19th century	Lee Geun U etc.	2008
On Chinese borderlands : Historical memory and ethnic identity	Lee Gyeong Ryong etc.	2008
Study of Liaodong and Xuantu Commandery	Seo Yeong Su etc.	2008
Critical review of the exploration of the origin of the Chinese civilization project	Bak Yang Jin etc.	2008
Integration policy of multi-ethnic nations and the question of the peace	Mun Hyeong Jin etc.	2008
New perspectives on the Okcho (Wuju) people based on newly found archaeological materials from the maritime region of Russia and neighboring regions	Gang In Uk etc.	2008
Narratives on minority history written by Chinese scholars in China	Gang Hyeon Sa etc.	2008
Xia–Shang–Zhou chronology project : Truth and falsehood in the studies of ancient Chinese civilization	Kim Gyeong Ho etc.	2008
Invention of local culture : Utilization of historical and archeological sources for making "Local culture" in modern China	Kim Jin U etc.	2008
Search for sources on modern Manchuria	Han Seok Jeong etc.	2009
Analyses of the published research on the Koguryo history of China's northeast project	Jo In Seong etc.	2009
Study of arrow–shooting myths in the Northeast Asia and critical examination of the sinocentric interpretation of myths in modern China	Lee Pyeong Rae etc.	2010
Liao River civilization and bronze culture in Northeast China	Lee Cheong Gyu etc.	2010
Current trends in the research of history of relationship between Hans and Northern Nations : Current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research of Chinese academia	Lee Geun Myeong etc.	2010
Perspectives and research trends on the conquest dynasties in foreign scholarship	Yun Yeong In etc.	2010
War memorabilia in Korea–China–Japan and the peace of Northeast Asia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010
Trends in historical research on Qing China	Kim Hyeong Jong etc.	2010
Construction and characteristics of Chinese high school history textbooks	Kim Ji Hun etc.	2010
Chinese research o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history of Balhae	Kim Jong Bok etc.	2011
Unified multiethnic nation theory in Chinese history textbooks	Kim Jong Bak etc.	2011
Travel routes and hubs on the history of Korean–Chinese relations	Yun Jae Un etc.	2011

Appendix 2 : List of important China studies books dona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Title	Author	Imprint date
Issues and strategies for the financial service sector in an FTA among Korea, China, and Japan	Kim Jun Dong etc.	2003
China-Japan-Korea FTA: Current progress and tasks	Jeong In Gyo etc.	2003
Taiwanese investment in China: Its development and strategies	Wei Ai etc.	2003
Role of exchange rate arrangement in regional Trade Agreement: Implications for a China-Japan-Korea Free Trade Agreement	Sin Gwan Ho etc.	2003
Analysis on trade rules between Korea, Japan and China: Implications on an FTA among three countries	Gang Mun Seong etc.	2003
Analysis on trade rules of Korea, Japan and China: Implications on an FTA among three countries	Lee Hong Sik etc	2004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related to a possible CJK FTA	Lee Chang Jae etc	2004
Economic effects of Korea-China FTA and main issues	Nam Yeong Suk etc.	2004
2003 studies on a China-Japan-Korea FTA	Jeong In Gyo etc.	2004
Increase of North Korea's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and its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Jo Myeong Cheol etc.	2005
Development of China's firms and industries-The impacts on Korea	Ji Man Su etc.	2005
Study of the China's technology industrialization model and strategy	Bak Seung Chan	2005
Changes in China's business environment and the strategies of foreign -invested enterprises	Bak Wol Ra etc.	2006
China's FTA strategy and its policy implications	Lee Chang Gyu etc.	2006
TV broadcasting industry and regulations in China	Yeo Ji Na	2006
Financial and logistic hub regions in Korea and China: Competition analysis and Korean strategies	Jeong Hyeong Gon etc.	2007
China's recent trade policy toward North America and implications for the Korean economy	Ju Jae U etc.	2007
Trade strategies and economic cooperation of developed countries towards China	Choe Ui Hyeon etc.	2007
Analysis on export competitiveness pattern of high technology items from China, Japan and Korea	Bang Ho Gyeong	2007
Characteristics of the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and the implications for a Korea-China FTA	Yang Pyeong Seop etc.	2007
Comparative analysis of FTA agreements by Korea, China, and Japan, and policy implications for a Northeast Asia FTA	Choe Nak Gyun etc.	2008
China's consumer market	Ji Man Su etc.	2008
Rules of origin in the Korea-China FTA	Jo Mi Jin etc.	2008
Status of China's financial sectors and the analysis of transaction barriers	Lee Chang Yeong	2008
Comparison of competitiveness among Korea-China-Japan on business service by analysis of the determinant for FDI	Jeong Hyeong Gon etc.	2009

Title	Author	Imprint date
Development of the retail industry in China and its implications	Lee Seung Sin etc.	2009
Chinese business cycle and macroeconomic policy: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Ji Man Su etc.	2010
Reviews on FDI among Korea-China-Japan and strategies for mutual investment promotion	Jeong Hyeong Gon etc.	2010
Chinese policy measures to cope with the global economic crisis and Sino-American economic relations	Lee Chang Gyu etc.	2010
China's aid policy and strategy	Gwon Yul etc.	2010



TOKSLIB 소식



국립중앙도서관 고전운영실 「옛 여인들의 삶을 엿보다」 전시회 개최

조선시대 여인들은 어떤 삶과 문화를 향유했을까? 여성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

조선후기 여류문인인 임윤지당(任允摯堂, 1721-1793)은 “내가 비록 여자의 몸이나 하늘로부터 받은 성품은 애당초 남녀의 차이가 있지 않다. 비록 안연이 배운 것을 따라갈 수 없다 하더라도 내가 성인을 사모하는 뜻은 매우 간절하다”라 하며 여성도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가 하면 19세기 초 빙허각이씨(憑虛閣 李氏)가 지은 ‘가정 살림에 관한 백과사전’ <규합총서>는 밥, 반찬 만들기, 장담기, 술 빚기, 옷 만드는 법, 길쌈, 누에치기, 소, 닭을 기르는 법, 태교, 육아법, 구급방, 부적과 주술로 마귀를 쫓는 법 등 5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실용적인 내용들을 자세히 담고 있다. 이밖에도 우암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 출가하는 큰딸을 위해 지은 훈육서 <송시열계녀서>, 사주당이씨(1739~1821)가 지은 태교에 관한 이론과 실재를 구비한 <태교신기장구대전>, 조선 중기 여류 작가 허난설헌(許蘭雪軒, 1563~1589)의 시문집 <난설헌집>등 고문헌은 옛 여인의 삶과 문화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렇듯 조선시대 여성들의 교과서를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심장섭)에서 마련되었다. ‘옛 여인들의 삶을 엿보다’ 전시회는 7월 2일(월)부터 9월 28일(금)

까지 국립중앙도서관 고전운영실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전통사회에서 유교적 윤리규범으로 사회 참여나 활동에 제약이 많았던 여성들의 삶을 재조명해 보고자 기획됐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장서 중 여성들을 위한 교훈서, 의서, 여성들이 지은 시문집, 회고록, 생활서 등 고문헌 23종을 선정해 선보였다.

전시 담당자는 “조선시대 여성들의 삶은 주로 자녀교육과 내조, 살림에 힘을 쏟았지만, 사회적 굴레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학문과 예술로 승화시킨 여성들도 다수 존재한다”고 밝히며 “이번 전시 자료를 통해 전통시대 여인들의 발자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시 목록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www.nl.go.kr/nl/antique/list.jsp>)의 ‘알림마당>도서관행사>고문헌전시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15회 韓·中 국립도서관 업무교류 세미나

한국과 중국 양 국가 대표 도서관이 만났다. 97년부터 계속된 한·중 국립도서관 업무교류 세미나는 올해로 15회째를 맞았다. 올해는 특히 ‘국가서지 표준화를 위한 국립도서관의 역할과 활동 및 향후 전개방향’을 모색하였으며 7월 3일에서 4일까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최되었다.

7월 3일(화) 첫날은 이숙현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관리부장이 ‘국가서지 표준화를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서지(書誌)표준화과정에서의 중국국가도서관의 역할 및 기능’은 쑤이깡(孫一鋼) 중국국가도서관 관장조리(館長助理)가 기조



국립중앙도서관 간부 및 중국 국가도서관 파견단

발표를 했다.

둘째 날인 7월 4일(수)은 박일심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사무관이 ‘국가서지 표준화 강화를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활동과 향후 전개방향’을, 중국국가도서관의 차오위창(曹玉强) 중국어 편집부 연구관원과 루오충(羅獅) 외국어 편집부 부주임이 ‘국가서목표준화작업에 관한 중국국가도서관의 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맡았다.

또한 중국 국가도서관 대표단은 국립국회도서관을 방문해 입법조사 서비스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디지털도서관 서비스 전반도 둘러봤다.



가난 피해 하와이로 간 이민 1세대 자료 기증

재야 역사연구가 안형주 선생, 하와이 이민 1세대 자료 2천여 점 기증

재야 역사연구가 안형주 선생(76)은 8월9일(목) 개인이 소장해 오던 한인 초기 미국인 민사 자료 등 2,492점을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했다.

이번에 기증한 자료는 경기도 양주군 별내면 죽산 안씨 집성촌 사람들이 가난을 면하고자 구한말 첫 하와이 이민배를 탄 이민 1세대의 가계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특히 콜로라도 덴버의 안재창 농장을 찾은 이승만(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정한경 등 독립운동가의 사진과 안창호 목사의 딸 안인서와 이화학당을 같이 다닌 유관순 열사 등 선구적인 인물들의 희귀 사진들도 있다.

1902년 12월 대한제국의 여권을 가지고 첫 하와이 이민배를 탄 안재창(독립유공자)과 일본 경찰에 쫓기다 선교사로 하와이에 간 안창호 목사(독립유공자) 관련 자료를 비롯, 안철영 영화감독 등 그 자녀들의 일제강점기 문화운동 자료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도 오늘날의 여권에 해당하는 대한제국 유민원(외국여행권을 관장하는 궁내부 산하 관서)이 하와이 이민자에게 발급한 1902년 집조(執照), 하와이 이민자들의 친목회 겸 상호회인 조미구락부 회원증서 등이 눈에 띈다.

기증자 안형주 선생은 첫 하와이 이민배를 탔던 안재창(독립유공자)이 중증조부, 안창호 목사(독립유공자)가 조부로 1985년부터 30여 년간 관련 자료를 수집해왔다. 안 선생

은 “집안 사람들이 구한말부터 태평양을 가운데 두고 떨어져 살아왔다. 광복 후 잠시 귀국하기도 했지만 한반도에 두 정부를 세우는 것을 반대해 다시 미국으로 건너갔다. 특히 아버지 안철영은 한국전쟁 후 납북돼 현재까지 소식을 모르고 있다”는 가족사를 밝히고 “초기 미국이민사, 독립운동사 등 4세대에 걸친 가족사를 통해 정리해 보고자 친척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들”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자료는 최초의 이민사 자료인 동시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사 연구에 도움이 될 만한 문서와 사진자료들”이라고 밝힌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문헌의 발굴, 확충 및 보존을 위하여 개인(단체)으로부터 애장서와 특화자료 등을 기증받고 있다.



국제도서관연맹총회(IFLA) ·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참가 핀란드 헬싱키, 심장섭 관장 관심그룹 진행 맡아

전 세계 도서관장과 사서 3,000여 명이 참석하는 제78차 국제도서관 연맹총회(IFLA) 및 제39차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가 8월11일(토)부터 17일(금)까지 핀란드 헬싱키 전 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세계도서관대회는 전 세계 도서관 사서와 이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전 세계 도서관의 트렌드를 익히는 자리다. 또한 각국 국립도서관장이 모여 현안에 대해 논의와 협력을 도모하는 장이다. 2006년 서울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끈 국립중앙도서관은 1998년 이래 매년 꾸준히 참가하고 있으며, 올해도 심장섭 관장을 비롯한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다섯 명이 참가했다.

특히 이번 참가 기간 중 8월14일(화) 오후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을 주제로 국가도서관정보정책 특별 관심 그룹(NILP SIG/National Information and Library Policy Special Interest Group) 공개 세션을 진행했다. 국가적 수준의 도서관 관련 법, 프로젝트, 사례연구, 향후 계획 등 도서관 발전을 위한 국가정책의 영향을 다뤘다.



아테네오 데 마닐라대학교, 17번째 한국자료실(Window on Korea) 개실

2012년 8월 29일, 아테네오 데 마닐라대학교가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국립중앙도서관과 함께 필리핀에서 처음으로 한국자료실(Window on Korea)을 공식 개실했다.

개실식에는 이해민 주필리핀 한국대사, 박태영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자료기획부장, 황성운 주필리핀 한국문화원장, 호세 라몬 빌라린 SJ 아테네오대학 총장, 존 폴 베르가라 로올라대학 부학장, 호세 크루즈 대외협력과 부학장, 루어데스 데이비드 리잘도서관 관장을 비롯하여 아테네오 데 마닐라대학교 교직원들이 참석했다.

한국자료실 프로젝트의 목적은 “한국자료실(Window on Korea)로 불리는 한국 컬렉션을 전세계 주요 대학에 설치함으로써 다양한 주제 및 포맷의 최신 한국 자료들을 제공하여 한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 프로젝트에 따라 관련 집기와 함께 개실 첫 해에 도서, DVD, CD를 포함한 2,000점의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5년간 200-300점을 추가로 제공하게 된다.

한국자료실에 비치될 자료들에 대해서는 현재 목록화를 거쳐 OPAC(Online Public Access Catalog)에 통합시키는 작업이 진행 중이며, 정리된 자료들은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한국자료실 컬렉션은 4층 대출부에 비치되어 있으며, CD와 DVD는 리잘도서관 멀티미디어 자료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다. (작성자 : 자니 술미에다, 필리핀 아테네오 데 마닐라대학교 도서관 사서)



2012 중국-아세안 문화포럼 및 문화 인재 개발 워크숍

“정보와 지식이 경쟁력인 시대, 한 국가나 한 도서관이 모든 정보를 수집·관리·보급·보존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협력이 필요하다.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세계의 사람들이 보다 쉽고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이것이 곧 개인 및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 난닝 리위안리조트 국제컨퍼런스에서 열리는 ‘2012 중국-아세안 문화포럼’ 및 ‘제7회 10+3 문화 인재 개발 협력 워크숍’에 초청된 국립중앙도서관 이숙현 자료관리부장은 포럼에서 디지털도서관 협력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국 문화부와 광시장족자치구, 저장성문화청이 주최하는 이번 2012 중국-아세안 문화포럼 및 제7회 10+3 문화 인재 개발 협력 워크숍은 한국과 중국 그리고 아세안 10개국 도서관 및 관련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협력 워크숍은 ‘아시아도서관의 자원공유와 개발협력’에 초점을 맞춰 문서자료 공유, 디지털도서관 개발 및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는 동아시아도서관 난닝 이니셔티브(Nanning Initiative of East Asian Libraries)를 채택, 동아시아 지역의 도서관들이 협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동아시아 지역의 자원 공동 구축과 안정화된 장기적 협력 관계 유지, 문헌자료 수집·보존·이

용과 서비스 등 국가 간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및 지역 플랫폼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국립도서관뿐만 아니라 공공 및 대학 도서관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모든 도서관의 협력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CDNL-AO(아시아·오세아니아 국립도서관장회의)와 차별화 된다.



2012 중국-ASEAN 문화포럼



제15회 한·일 국립도서관 업무교류 세미나

한·일 양국의 국립도서관간 업무교류 세미나가 9월 4일(화)부터 9월 11일(화)까지 8일간 일본 도쿄의 국립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1997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제15차를 맞이한 이번 업무교류는 일본측의 초청으로 국립

중앙도서관 오혜영 국가서지과장을 비롯한 국립중앙도서관 대표단이 참가했다. 한·일 양국 국립도서관 업무 교류는 오타키 노리타다(大滝則忠) 일본국립국회도서관장과의 만남과 세미나로 시작됐다.

5일(수) 첫날은 오혜영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관리부 국가서지과장이 ‘국립중앙도서관의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로라 미카 국립국회도서관 총무부 기획과장이 ‘국립국회도서관의 현황과 과제 2012’에 대한 기조발표를 맡았다.

6일(목) 둘째 날에는 김선미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과 사서가 ‘국립중앙 도서관의 인명전거제어 현황과 과제’, 광수영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운영과 사서가 ‘국립중앙도서관의 협력형 온라인 지식정보서비스(CDRS) 현황 및 과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시미즈 에츠코(清水悦子) 국립국회도서관 수집·서지조정과 과장보좌의 ‘국립국회도서관의 서지데이터 작성·제공 현황과 향후 전개’, 미나미 료이치(南亮一) 국립국회도서관 간사이관 도서관협력과장이 ‘국립 국회도서관의 도서관 협력사업에 관하여’ 주제발표가 잇달았다.

이뿐 아니라 국립중앙도서관 대표단은 본관의 수집·서지부, 간사이관의 도서관협력과와 전자정보부 등 이번 주제와 관련이 있는 해당 부서의 실무자들을 만나서 심도 있는 간담회를 가졌다.

또한 국립국회도서관 국제어린이도서관과 간사이관의 아시아정보실 견학을 통해 이용자 서비스에 대해 파악하고, 업무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중앙도서관 파견단과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환영단



국립중앙도서관 · 美 위스콘신주립大, 최초 국제협력 사서교육 시범운영

국립중앙도서관과 미국 위스콘신주립대학교와 협력으로 시범 운영된 국제협력 사서교육 프로그램 ‘도서관글로벌리더과정’은 9월3일(월)부터 10일(월)까지 전국 도서관 사서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현지에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양적성장을 한 도서관(총 도서관수 18,401개관)이 질적 성장을 이루는 핵심 동력이 도서관 사서’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국제적 안목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이 적극 추진했다.

이에 따라 ‘도서관글로벌리더과정’은 위스콘신주립대 밀워키대학, 매디슨대학 캠퍼스에서 진행되는 현장 강의와 미국도서관협회, 시카고공공도서관 탐방, 미의회도서관 담당자의 전문 강의로 내실 있게 진행됐다. 위스콘신주립 밀워키대학의 문헌정보학부 교수와 교육생, 운영진 등 연찬회를 시작으로 교육이 시작됐다.

교육 2일차는 정우섭 교수의 순차통역으로 위스콘신주립 밀워키대학의 문헌정보학과 교수의 미국 도서관 개관(Joyce Latham 교수), 미국의 도서관 교육과정(Bonnie Withers 교수), 오늘날 공공도서관(Cherine Hansen 교수) 등의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 3일차는 매디슨대학도서관 운영현황 및 견학(김경선 교수 등), 매디슨대학 내 주정부아카이브 정책(Harry Miller) 강의 및 견학이 이어졌다.

교육 4일차 미국도서관협회 방문교육은 도서관정보서비스의 개발, 전문직으로서 사서의 역할과 지위를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 등을 접했다. 특히 도서관계의 핫이슈



도서관글로벌리더과정 참가자 및 강사

및 미래 도서관의 역할과 비전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시카고 공공도서관에서 방문교육을 받고 한국의 전래동화 번역본 17권을 기증하여 한국문학도 소개했다.

교육 5일차 미국 의회도서관 방문은 한국인 사서로 오랫동안 활약해 온 소냐 리, 이영기, 이영심 사서의 정보서비스 분야와 자료수집, 자료관리 분야에 대한 현황과 질의응답을 통해 미국 의회도서관의 선진 도서관시스템의 노하우를 배웠다.



<한국서지>의 저자 모리스 쿠랑 소장본 254책 발견

‘국외 한국 고문헌 조사보고서 I : 콜레주 드 프랑스 소장 한국 고문헌’ 펴내



국립중앙도서관 발간자료 : 콜레주 드 프랑스 소장 한국 고문헌

프랑스 동양학자인 모리스 쿠랑(Maurice Courant, 1865-1935)이 수집했던 한국 고서가 발견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해외 한국고서 디지털화 사업의 일환으로 콜레주 드 프랑스(Collège de France)에 소장된 한국 고서를 조사하던 중 모리스 쿠랑의 소장본 254책을 확인했다.

모리스 쿠랑이 쓴 <한국서지(Bibliographie Coréenne)> 는 한국학이라는 용어조차 없었던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작성된 한국 고서에 대한 방대한 규모의 자료로 오늘날에도 한국학을 연구하는 국내외 학자들에게 필수적인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1901년에 발간된 보유판에는 현존하는 최

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의 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한국서지> 서문을 보면 모리스 쿠랑은 ‘서울의 책방을 모두 뒤지고 그 장서를 살펴나갔다. 가장 흥미 있을 것 같은 책들을 사들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써 놓

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모리스 쿠랑이 수집한 한국 고서들에 대한 소재는 콜레주 드 프랑스에 2~3종이 소장되었다는 것 이외에는 알려지지 않았다.

조사에 참여한 국립중앙도서관 관계자는 “콜레주 드 프랑스에 소장된 한국고서는 주제별로는 사부(史部)의 자료가 가장 많고 발행 시기도 19세기와 20세기의 자료가 대부분이었으나 소장자료 중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는 국내외에 전래(傳來)되는 것이 적은 희귀본이다. 조선 후기 필사본 고지도인 ‘천하제국도(天下諸國圖)’에 수록된 지도 중 ‘임진목호정계시소모(壬辰穆胡定界時所模)’는 1712년(숙종 38) 조선과 청나라가 백두산 주변을 조사한 후 정계비를 세운 여정을 그린 것으로 유사한 것이 발견되지 않은 귀중한 지도이며 강원도 지도에는 울릉도 남쪽에 우산도(于山島, 독도)가 그려져 있다. 앞으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콜레주 드 프랑스에 소장된 한국고서는 모두 53종 421책이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간한 ‘국외 한국 고문헌 조사보고서 I : 콜레주 드 프랑스 소장 한국 고문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조사보고서는 한국어와 불어로 서지목록과 자료에 대한 논고를 수록하였다. 또한 11월부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rcis>)을 통하여 서지목록과 원문도 공개했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은 1982년부터 해외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 고서를 조사하고, 귀중 문헌을 영인·수집하고 있다. 특히 규장각 등 국내 55개 기관, 미국하바드엔칭도서관 등 해외 37개에 소장된 한국고서의 종합목록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외 한국학 사서들 한류 네트워크 구축

최근 한류(韓流)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한국 문화 등 한국학 전반에 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세계 57개국에 있는 313개 대학에 한국어학과 또는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또한 대학 내 한국학센터를 운영, 학술연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곳도 43개 기관에 이르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005부터 해외 한국학 사서들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한국학사서 글로벌 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for Korean Studies Librarians, www.nl.go.kr/inkslib)를 운영하는 등 해외 한국학 사서들을 꾸준히 지원해왔다. 지난 10월 8일부터 16일까지는 미국, 중국, 캐나다, 프랑스, 과테말라, 일본, 필리핀, 호주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학 사서 17명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최하는 ‘2012 해외 한국학 사서 워크숍(2012 Overseas Koreanology Librarian Workshop)’에 참가했다. 해외 한국학 자료의 체계적 정리 및 도서관 지식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을 위한 상호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2012년 워크숍 참가자들은 한국학 및 한국 관련 자료의 정리·이용에 필요한 참고정보원(情報源) 소개와 정리법, 고문헌의 이해와 정리·관리법 등 도서관 관련 강의를 들었다. 또한 도서관 및 한국학 전반에 걸쳐 관심 있는 주제(사례)를 정해 발표하고 상호 논의하는 등 업무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뿐 아니라 워크숍 기간 중 해외 한국학 사서들은 도서관 및 유관기관을 방문해 상호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국립중앙박물관, 경복궁, 창덕궁, 남산 등 우리문화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기회도 주어졌다.

“올해로 다섯 번째 맞이하는 해외 한국학 사서 워크숍을 통해 참가자 상호간의 업무 노하우와 정보 공유 및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국어와 한국학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도서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 한국학 사서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2012 해외 한국학 사서 워크숍



도서관 혁신 인재 국제 네트워크(INELI) 참가자 NLK 방문

데보라 제이콥스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 글로벌도서관부장과 도서관 혁신 인재 국제 네트워크(INELI, International Network of Emerging Library Innovators) 참가자, 그리고 그들의 멘토 등 32명이 10월 22일(월)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을 견학하고 한국 공공도서관의 현황과 도서관 발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에이미 김슨 프로그램 담당관은 INELI가 빠르게 변하는 도서관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자 신예 도서관 지도자를 양성하고, 이들이 혁신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발굴·실험하고, 함께 배워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하며, 한국의 공공도서관이 최근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 INELI 회의를 한국 서울에서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6박 7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INELI 참가자와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 관계자는 삼성딜라이트 센터와 서울도서관, 정독도서관, 이진아 기념 도서관을 견학했다.



옥스퍼드까지 진출한 한류

11월 옥스퍼드대학에는 한국과 관련한 행사들이 풍성하게 열렸다.

11월 6일에는 고은 시인이 한국어로 시를 낭송하고 안선재 서강대학교 명예교수가 영어로 통역하는 문학행사가 올프슨칼리지 할데인실에서 열렸다. 이 행사에는 옥스퍼드대학의 주요 문학자들이 참석해 더욱 빛을 발했다. 행사 후에는 저녁 만찬과 함께 와인 리셉션이 있었다. 이 문학행사는 이 대학에서 한국사를 가르치는 제임스 루이스 박사가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고은 시인(우)과 안선재 교수(좌)



고은 시인과 지은 카이어 박사
(민영빈-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어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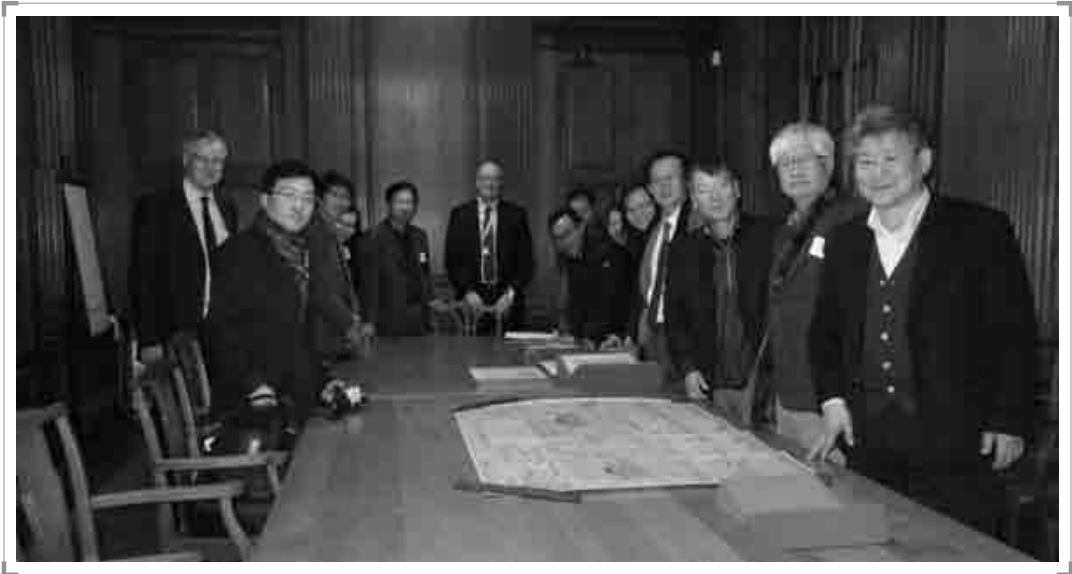
[사진 협찬: 토마스 쿼터메인]

11월 7일에는 팝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수많은 유명 정치인들이 “훈련” 받은 수준 높은 토론클럽인 옥스퍼드 유니언에서 강연을 했다. 1823년에 설립된 옥스퍼드 유니언은 윈스턴 처칠경, 달라이 라마, 테레사 수녀에서부터 마이클 잭슨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저명인사들을 초청해 강연을 듣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싸이는 “강남스타일” 비디오의 인기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말춤을 직접 선보였으며, 다수의 참가자들도 싸이와 함께 말춤을 추었다.



[사진 협조: 옥스퍼드 유니언 조나단 던바]

11월 22일 지식경제부의 고위관료 4명이 옥스퍼드대학과 보들리언도서관을 방문했다. 방문기간 중 이들은 리차드 오벤덴 부사서와 환담을 나누고 희귀한 한국의 보물들을 관람했다.



[리차드 오벤덴 보들리언도서관 부사서(중앙), 김종민 교수(우측 맨끝), 가이 호울스비 교수(좌측 맨끝)
[사진 협조: 청민]

5월 10일에는 황창규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장 일행이 대학을 방문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한다.

<http://www.eng.ox.ac.uk/public-relations/news/national-cto-of-the-korean-governmentand-former-ceo-of-samsung-visits-oxford>

11월 27일에는 박석환 주영 한국대사가 대학과 보들리언도서관을 방문했다. 박석환 대사는 부총장과 간담을 가진 후, 생물의공학연구소, 보들리언도서관, 그리고 몇몇 대학들을 둘러보았다. 보들리언도서관에서 박석환 대사는 셰익스피어의 첫 번째 책과 희귀한 한국 관련 보물들을 관람했다. 한국과 옥스퍼드 대학간의 협력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한다.

http://www.ox.ac.uk/international/oxford_around_the_globe/asia_east/korea_.html



오원 축제 포스터

옥스퍼드에서는 또 올 한 해 동안 다양한 한국 관련 행사들이 개최되었는데, 그 중 눈에 띄는 것이 (옥스퍼드 대학의 한국 음악, 예술, 문화 축제인) 오원 축제이다. 이 축제는 노스 월 아트센터의 주도로 옥스퍼드대학교 애쉬몰린 뮤지엄, 노스 월 아트센터, 세인트힐다 대학 잭클린 뒤 프레홀 등 3곳에서 7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개최되었다. 이 축제를 통해 옥스퍼드 지역 주민들은 저명한 한국 예술가들의 음악과 다도, 서예 작품, 도자기 등을 감상할 수 있었다.

또, 8월 29일에는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의 연구자와 교수 등 9명이 보들리언도서관을 방문하여 특별장서에 있는 한국 관련 자료들을 장시간 동안 살펴보았다. 보들리언도서관은 이들이 한국 자료에 대해 갖고 있는 지식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규장각 연구자들은 또 한국 관련 특별장서를 디지털화하는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2012년 11월 16일에는 한국자료실(Window on Korea)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114상자(약 3,000권)의 책이 도착했다. 이는 한국학과 관련하여 옥스퍼드가 기증받은 최대 분량의 자료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들리언도서관에 보내준 114상자의 책들(사진 협조: 보들리언도서관 앤젤라 아놀드)

최근 국립중앙도서관의 후원 하에 설립된 한국학도서관에 소장될 예정이다.

2012년 3월에는 삼성종합기술원 임원을 역임한 바 있는 김종민 박사가 공학과 전기공학 교수로 임명되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한다.

<http://www.eng.ox.ac.uk/public-relations/media/literature/Newsletter-2012-2013.pdf>

옥스퍼드 대학교로 유학 오는 한국 학생들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1/12	144 (남한)
2010/11	134 (남한) + 4 (북한)
2009/10	132 (남한)
2008/9	125 (남한)
2007/8	111 (남한) + 6 (북한)
2006/7	95 (남한) + 12 (북한)

2012년은 한국학과 한국 관련 자료가 크게 발전한 해로, 옥스퍼드에서 한국의 위상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작성자 : 청민, 영국옥스포드대학교 보들리안도서관 중/한국학부 도서관장)



18번째 해외 한국자료실(Window on KOREA) 개실

국립중앙도서관은 12월 4일(화), 멕시코 멕시코시티 소재 콜맥스대학교의 다니엘 코시요 비에가스도서관(관장 Micaela Chávez Villa) 3층에 18번째 한국자료실(Window on Korea)를 개실했다.

멕시코 콜맥스대학교 도서관에 개실하는 한국자료실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지원한 800여 책과 서가, 책상 등을 갖추고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멕시코 콜맥스대학교 도서관 내 한국자료실(Window on Korea)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200

여 책(점)씩 총 1,000여 책의 한국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2007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하는 한국자료실(Window on Korea)는 해외 국립·공공·대학도서관에 한국관련 도서·비도서(비디오, CD 등), 서가(書架) 및 컴퓨터 등을 지원하여, 한국자료실 설치와 그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우리나라의 역사·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국가 이미지를 높이며, 한국학연구 지원 등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태국·베트남·몽골·인도네시아·이란·터키·이집트 등 7개국의 국립도서관을 비롯하여 미국, 독일, 스페인, 벨기에 등의 공공·대학도서관 등 17개의 한국자료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멕시코 한국자료실 개실 기념행사는 4일(화) 오전 11시(현지 시각), 최종학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장과 홍성화 주 멕시코 한국대사, 서남교 주 멕시코 한국문화원장, Micaela Chávez Villa 도서관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콜맥스대학교의 다니엘 코시요 비에가스도서관 3층에서 열렸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번 멕시코 한국자료실 개실을 계기로 한국과 한국문화 저변 확산과 함께 양국 문화교류협력 관계가 더욱 돈독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향후 양국 도서관간 상호 교류협력에도 긍정적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TOKSLIB News



NLK Exhibition “Into the lives of women in the past”

How was the life of women in the Joseon Dynasty like? How about their culture? How did they think of living as a woman?

Yim Yoon Jidang (1721-1793), a writer in the late Joseon Dynasty, wrote tha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in personal nature each given from the divinity. My knowledge may not be comparable to that of Yan Hui, but my respect for the sage is immeasurable,” believing that a woman could become a sage as well.

Binguhgak Lee, in the early 19th century, published *Gyuhap chongseo*, an encyclopedia about housekeeping matters. In this book, the author describes practical knowledge needed in daily lives including recipes for side dishes, soy sauce-making, brewing, sewing, weaving, sericulture, raising livestock, pregnancy and childcare, emergency medicine, and exorcism. Other old books, including *Song Siyeal Gye Nyeo Seo*, an educational book written by Song Siyeal (1607-1689) for his marrying daughter, *Taegyosingi Janggu Daejeon*, a book by Sajudang Lee (1739-1821) that describes theories and practices about prenatal education, and *Nanseolheonjip*, a collection of poems written by Huh Nanseolhun in the mid Joseon Dynasty (1563-1589), give us a hint of what the lives of women were like in the p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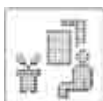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NLK, Chief Executive Shim Jang-sup) held an exhibition of

books written for and/or by women in the Joseon Dynasty. The exhibition “Into the lives of women in the past” was held from July 2 through September 28 at the Old and Rare Book Collection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This exhibition was designed to shed light on the lives of women in the traditional society, whose social participation was severely restricted by Confucius rules. A total of 23 books housed at the library, including educational and medical books as well as poetry, memoirs, and general knowledge books written by and/or for women, were selected for exhibition.

“While women during the Joseon Dynasty mostly devoted themselves to housekeeping as well as supporting their children and husband, there were quite a few women who showed excellence in literature and arts despite the social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said the person in charge of the exhibition. “This exhibition will give us a hint of their lives.”

The list of the books displayed in the exhibition can be found at the NLK Korean website (<http://www.nl.go.kr/nl/antique/list.jsp>).



The 15th Korea-China National Library Work Exchange Seminar

The national libraries of Korea and China have met for the 15th times this year since their first exchange in 1997. This year, the two libraries representing each country have discussed the roles, activities, and future directions of national libraries in the area of standardization of national bibliography. The Korea-China National Library Work Exchange Seminar was held for two days (July 3-4) at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in Seoul.

On the first day of the seminar, Lee Sook Hyeun, Director General of the Library Service Department of the NLK, and Sun Yigang, Director Assistant of the National Library of China (NLC), each made a keynote presentation on the roles of national libraries in the standardization of national bibliography.

On the second day, Park Il-sim, Deputy Director of the Bibliographic Control Division of the

NLK, made a presentation about the activities and future directions of the NLK in enhancing the standardization of national bibliography. On the NLC side, Cao Yu Qiang, Research Librarian at the Chinese Acquisitions and Cataloging Department, and Luo Chong, Deputy Director of the Foreign Language Publications Acquisitions and Cataloging Department, talked about the status and directions of the Chinese library in relation to the topic area.

The Chinese delegates also visited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to learn about its legislative research service and toured around the digital library service of Yonsei University Library.



NLK board members and NLC delegates



A US-based historian donated some 2,000 items related to the life of the first-generation Korean immigrants to the US

Mr. Ahn Hyeong-ju, a 76-year-old US-based historian, generously donated to the NLK on August 9 a total of 2,492 items including materials on the history of early Korean immigrants to the US.

The materials provide detailed accounts of the history of the Ahn family from Gyeonggi-do Yangju-gun Byeolnae-myeon Juksan who migrated to Hawaii in the lat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order to escape from extreme poverty. The collection includes rare pieces of photos of

famous independence activists including Rhee Syngman (the 1st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Jeong Han-gyeong visiting a farm run by Mr. Ahn's great grandfather Ahn Jae-chang in Denver, Colorado, in addition to Rhu Gwan-soon, who went to the Ewha Hakdang with Ahn In-seo, daughter of Reverend Ahn Chang-ho. Reverend Ahn Chang-ho is Mr. Ahn's grandfather.

There are also materials of Ahn Jae-chang (independence activist), who went to Hawaii aboard the first immigrant ship with a passport issued by the Korean Empire, and Reverend Ahn Chang-ho (independence activist), who also went to Hawaii as a missionary to avoid the Japanese police following hard on his heels, as well as other materials produced by their children including film maker Ahn Cheol-young that show the trend of cultural movement under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Also noticeable are a passport issued in 1902 by Yuminwon, a government office of the Korean Empire in charge of issuance of passport, and membership certificates for Jomigurakbu, a Korean American club in Hawaii.

Mr. Ahn had collected these materials for about 30 years since 1985. “My family has been living on the other side of the Pacific Ocean since the colonial period. Some came back to Korea after the country's independence but moved back to the States in protest against the establishment of two governments on the Korean peninsula. My father, Ahn Cheol-young, was abducted to North Korea during the Korean war and his whereabouts has been unknown since then,” said Mr. Ahn. “These are the materials that I've collected from my families and relatives in order to record the history of my family that spans over four generations. It is a snapshot of the life of early Korean immigrants to the States and Korea's independence movement.”

The NLK commented, “These documents and photos will be of great help in studies on the history of early immigrants to the US and the independence movemen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occupation.” The library welcomes donations from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that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of national collections.



NLK participated in the IFLA General Conference and the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held in Helsinki, Finland

NLK Chief Executive Shim Jang-gup facilitated a special interest group

The 78th IFLA General Conference and the 39th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WLIC) were held from August 11 through 17 in Helsinki, Finland. Around 3,000 librarians came from around the world to participate in the events.

The WLIC is where librarians and relevant experts around the world gather to share information and experience and to learn about recent trends in the library community. Also, it is an opportunity for the leaders of libraries to discuss current issues and promote cooperation. As representatives of the NLK, which has participated in the international event every year since 1998, Chief Executive Shim Jang-sup and five other librarians participated. In 2006, the NLK successfully hosted the Congress in Seoul.

Among a number of programs held during the events, the NLK facilitated on August 14 the National Information and Library Policy Special Interest Group (NILP SIG) under the theme of “Innovative policies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library”. This session held discussions on the impact of national policies on the development of library including laws, programs, case studies, and future plans.



The 17th Window on Korea opened in Ateneo de Manila University.

The Ateneo de Manila University in cooperation with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NLK) through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officially launched the first “Window on Korea” in the Philippines last August 29, 2012.

Leading the ceremony were Korean Ambassador Hye Min Lee, Director General Tae Young Park of the National Digital Library of Korea, Director Seong Un-Hwang of the Korean

Cultural Center in the Philippines, Ateneo President Fr. Jose Ramon Villarin, S.J., Vice President Dr. John Paul Vergara of the Loyola Schools , Vice President Fr. Jose Cruz, S.J. of Global Relations, and Director Lourdes David of the Rizal Library. Deans, faculty members and professionals from the Ateneo de Manila University were also present during the momentous event.

Based on the “Window on Korea” Project information documents, the objective of the undertaking is to install Korean collection entitled “Window on Korea (WOK)” at leading libraries around the world to “provide up to date Korea-related materials in a variety of topics and formats to people for a better understanding about Korea.” During the first year, 2000 volumes of different library materials, such as books, DVDs and CDs, are provided to the chosen library and additional 200-300 volumes will be given during the next five years. Furniture and equipment will also be provided b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Materials for the Window on Korea are currently being cataloged and integrated to the OPAC (Online Public Access Catalog). Processed materials are now available for lending to library users. The WOK collection is housed at the fourth floor of the Circulation Section while the CDs and DVDs are made available in the Multimedia Resource Center of the Rizal Library. (Written by Janny Surmieda, librarian of the Rizal Library of the Ateneo de Manila University)



The 2012 China-ASEAN Cultural Forum and the Seminar on Cultur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Cooperation

“In this era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it is not plausible anymore for a single country or a single library to collect, manage, provide access to, and preserve all the information. We need to cooperate.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can gain access in an easier and more equal manner to information through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Then, this will lead to the development of both individuals and nations,” said Lee Sook Hyeon, Director General of the Library Service Department of the NLK, at the 2012 China-ASEAN Cultural Forum and the 7th

10+3 Seminar on Cultur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Cooperation held in Nanning, China. Lee was invited to the forum as a presenter on the issue of cooperation for digital library.

Delegates from ten libraries and relevant organizations in Asia participated in the events sponsor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of China and the People's Government of Guangxi Zhuang Autonomous Region. Discussions at the Seminar were focused on resource-sharing and developmental cooperation for digital library between Asian libraries.

The participants at the Forum adopted the Nanning Initiative of East Asian Libraries designed to lay a foundation for cooperation among libraries in the East Asia region. The initiative underscores the need for comprehensive and effective cooperation among regional libraries and enhancement of a regional platform including establishment of communal resources, maintenance of long-term cooperation, as well as collection, conservation, and access of materials. The Forum is distinctive from the Conference of Directors of National Libraries -Asia Oceania (CDNL-AO) in that it promotes cooperation among all types of libraries in the East Asia region including public and university libraries.



2012 China-ASEAN Cultural Forum



The 15th Korea-Japan National Library Work Exchange Seminar

The Korea-Japan National Library Work Exchange Seminar was held for eight days from September 4 at the National Diet Library (NDL) in Tokyo, Japan.

The NLK delegates including Oh Hye-yeong, Director of the Bibliographic Control Division, participated in the 15th Work Exchange Seminar, which was incepted in 1997. The Seminar began with a talk with Librarian Noritada Otaki of the NDL.



NLK delegates and NDL board memb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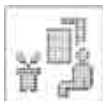
On the first day, Oh Hye-yeong of the NLK and Mika Lawler at the Planning Division of the NDL each made a keynote presentation on the current status and future of national libraries.

On the second day, Kim Sunmi, librarian at the Bibliographic Control Division of the NLK, discussed the status and remaining challenges of the name authority control at the NLK; Kwak Su-young, Librarian at the Collection Management and Service Division of the NLK, on the status and remaining challenges of the Cooperative Digital Reference Service (CDRS) of the NLK; Etsuko Shimizu, Assistant Director of the Acquisitions Administration and Bibliography Control Division of the NDL, on the creation and provision of bibliographic data at the NDL; and Ryoichi Minami, Director of the Library Support Division of the NDL, on the library cooperation projects of the NDL.

The NLK delegates also had in-depth discussions with the librarians of the NDL in charge of each relevant issue, including those at the Acquisitions and Bibliography Department as well as the Library Support Division and the Digital Library Division of the Kansai-kan.

Later, the Korean delegates visited the International Library of Children's Literature and the

Asian Resources Division of the Kansai-kan to learn about their user services and exchange opinions about their work in general.



NLK and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ovided a pilot education program for librarians

The Library Global Leader Program, a pilot education program for librarians launched by the NLK in partnership with the University of Wisconsin in the United States, was held on the Milwaukee and Madison campuses of the University from September 3 through September 10. A total of 21 Korean librarians participated in the program. With a belief that librarians are the driving engine for the enhancement of the quality of library service, the NLK took an initiative in this project with a goal to cultivate competent librarians with international perspectives. In South Korea, there are currently a total of 18,401 libraries.

The Library Global Leader Program started with a meeting with the faculty members, students, and administrative staff at the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 at UW-Milwaukee, followed by field lectures, visits to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nd the Chicago Public Library, and lectures at the Library of Congress.

The program on the second day consisted of a number of lectures accompanied by Professor Jeong Woo-seop's interpretation including: the overview of American libraries by Professor Joyce Latham; the curriculum of the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 studies in the US by Professor Bonnie Withers; and the current status of public libraries by Professor Cherine Hansen. On the third day, participants visited the libraries at UW-Madison to learn about their operation and services (Professor Kim Gyeong-sun) and took lectures on the Wisconsin State government's archive policy provided by Mr. Harry Miller, Reference Archivist of UW-Madison Libraries.

On the visit to the AMA made on the fourth day, the participants learned about the development of library information services and a number of activities that contribute to

promoting the roles and status of librarians. During the visit, South Korean participants exchanged opinions about some hot issues in the library community and the roles and visions of future libraries. At the Chicago Public Library, the participants donated a total of 17 traditional Korean storybooks for children (English editions) to the library.

The visit to the Library of Congress on the fifth day included presentations and Q&A sessions by Korean-American librarians at the library including Sonya Lee, Young Ki Lee, and Youngsim Leigh on the areas of information service, acquisition, and material management.



Participants and lecturers of the Library Global Leader Program



Total 254 books collected by Maurice Courant were found NLK published the Investigation Report on the Old Korean Books Overseas I: Old Books Housed at the Collège de France

Some of the old Korea-related materials collected by Maurice Courant (1865-1935), a French scholar on Asian studies, were newly discovered.

During its examination of the old Korea-related documents and books housed at the Collège de France as part of its Digitalization of Old Korean Books Housed Overseas Project, the NLK discovered a total of 254 new books collected by Maurice Courant.

Maurice Courant's famous book, *Bibliographie Coréenne*, is considered one of the most valuable

books among scholars in Korean Studies. Courant's book, which was written between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y when Korean studies did not even exist, includes comprehensive data on Korean literature. The supplement edition published in 1901 lists the contents of Jikji, the world's oldest extant book printed with movable metal type.

In the introduction of *Bibliographie Coréenne*, Courant wrote, "I searched all the bookstores in Seoul to buy interesting books and keep a record of other books." Only two to three types of materials of Courant's Korean collection had been known to be housed at Collège de France.

"Among the old Korean books housed at the institution, history and geography books comprise the largest amount and mostly they were written in the 19th and 20th centuries. But there are also such a rare book as *Hae-dong-je-guk-gi* (해동제국기). *Yim-jin-mok-ho-jeong-gye-si-so-mo* (임진목호정계시소모), which is included in *Cheon-ha-je-guk-do* (천하제국도), is a manuscript map from the late Joseon Dynasty that depicts a journey of the delegates of Joseon and the Qing Dynasty of China who investigated the Baekdu Mountain area and erected boundary monuments in 1712 (38 years into King Sukjong's reign). This is the only extant print of the map. Another noticeable material is a map of Gangwondo that shows Usando or currently named Dokdo next to Ulleungdo. We need more in-depth research on these materials," said an NLK official participated in the investigation.

Old Korean books currently housed at Collège de France are 53 types and 421 books in total. The list of the books can be found in the *Investigation Report on the Old Korean Books Overseas I: Korean Books Housed at the Collège de France*. This report includes a bibliographic



Investigation Report on the Old Korean Books Overseas I: Korean Books Housed at the Collège de France (Published by the NLK)

catalog and an article about the materials both in Korean and French. The bibliographic catalog and original texts can be accessed on the NLK's Korean Old and Rare Collection Information System (<http://www.nl.go.kr/korcis>) from November, 2012.

Since 1982, the NLK has been investigating old Korea-related materials housed overseas as well as collecting facsimile and original copies of important ones. It also continues to work on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cataloging system and digitalization of Korea-related materials located in 55 local institutions including Kyujanggak and 37 overseas institutions including Harvard-Yenching Library.



Overseas Korean studies librarians formed a network of Korean Wave

Thanks to the influence of the Korean Wave, there is growing interest around the world on Korea and Korean culture. A total of 313 universities in 57 countries provide Korean Studies majors and/or Korean language courses. In addition, 43 universities have in place Korean centers in order to systematically support research on Korea.

As part of effort to support Korean studies abroad,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since 2005 has held an annual workshop for overseas librarians on Korean studies and runs the International Network for Korean Studies Librarians (www.nl.go.kr/inkslib). In the 2012 Overseas Koreanology Librarian Workshop held from October 8 to October 16, 17 overseas Korean studies librarians including those from the United States, China, Canada, France, Guatemala, Japan, the Philippines, and Australia participated. The goal of this workshop is to create an international network for systematic compilation of overseas Korean materials and shared use of library knowledge information resources.

For the participants in the 2012 workshop, lectures were provided on reference information sources and processing methods in relation to the processing and use of Korea-related materials as well as understanding, processing, and management of old Korean materials. The workshop

participants also made presentations and exchanged opinions on the topics of interest related to library practice and Korean studies in general.

Meanwhile, the international librarians also had a chance to enjoy the beauty of Korean culture by visiting the NLK, Gyeongbokgung, Changdeokgung, and Namsan, in addition to their visits to several Korean libraries and relevant organizations.

“I hope that Korean studies will further flourish based on the exchanges on skills and up-to-date information among librarians and the network of information created through this workshop, which marks its fifth anniversary,” said an NLK official. “It is projected that the need for a workshop for overseas Koreanology librarians will continue to grow in the future.”



2012 Overseas Koreanology Librarian Workshop Participants with Minister Choe Kwang-shik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ELI Participants visited NLK

Deborah Jacops, Director of Global Libraries at the 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 and the participants and their mentors of the International Network of Emerging Library Innovators (INELI) visited the National Digital Library of Korea on October 22 to learn about the status of public libraries in Korea and the country's plan for the development of libraries.

According to Amy Gipson, Associate Program Officer at Global Libraries, the INELI is designed to produce next-generation leaders of the library community who can aptly respond to the fast-changing library environment and to provide them with an opportunity in which they can develop and experiment innovative library services and learn together from them. She added that they came to hold the INELI conference in Seoul to witness the rapid progress that South Korean public libraries are making.

On their 7-day trip to Seoul, the INELI participants and officials from the 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 visited Samsung d'light Center, Seoul Metropolitan Library, Jeongdok Public Library, and Leejinah Memorial Library.



Korean wave reaches Oxford

On 6 November, a literary event featured the celebrated poet Ko Un who gave a poetry reading in Korean in the Haldane Room, Wolfson College, with Brother Anthony (Korean name An Son-jae, Emeritus Professor from Sogang University) interpreting and reading in English. The event was very well attended by leading literary scholars in Oxford. There was a wine reception followed by a dinner afterwards. This was one of the events regularly organised and hosted by Dr James Lewis, University Lecturer in Korean History.



Ko Un (right) with Brother Anthony (Left)



Ko Un with Dr. Jieun Kiaer, Young Bin Min–Korea Foundation University Lecturer in Korean Language and Lingu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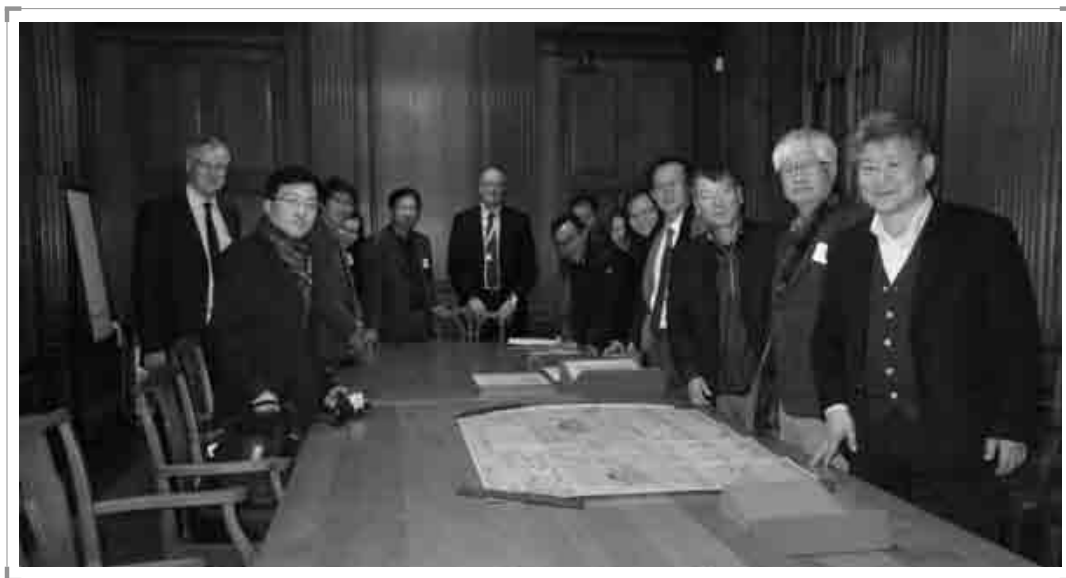
[Photos courtesy of Thomas Quartermain.]

On 7 November, the pop star Psy (real name Park Jae-sang) delivered a speech to the Oxford Union -the famous and prestigious debating society where many well-known politicians were “trained”. It was founded in 1823 and has a long history of hosting famous figures from Sir Winston Churchill, Dalai Lama, and Mother Teresa, to Michael Jackson. Psy commented on the fame of his “Gangnam style” video and gave a demonstration of his famous horse dance. Many in the audience joined in.



[Photo courtesy of Jonathan Dunbar, Oxford Union.]

On an official level, on 22 November, four groups of high-level Korean visitors from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visited the University and the Bodleian Library. During their visit to the Bodleian Library, they were greeted by the Deputy Librarian Richard Ovenden and were shown rare Korean treasures.



Bodleian Deputy Librarian Richard Ovenden (centre), Professor Jong-min Kim (far right), and Professor Guy Houlby (far left).
[Photo courtesy of Minh Chung.]

Another earlier official visit was on 10 May when there was a delegation led by Dr. Changgyu Hwang who is the National Chief Technology Officer (CTO) and Head of the Office of Strategic R&D Planning in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i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the following webpage:

<http://www.eng.ox.ac.uk/public-relations/news/national-cto-of-the-korean-governmentand-former-ceo-of-samsung-visits-oxford>

On 27 November, his Excellency Park Suk-hwan, 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Kingdom, visited the University and also the Bodleian Library. He was greeted by

the Vice-Chancellor and his schedule included tours of the Institute of Biomedical Engineering, a tour of the Bodleian Library, and of certain Oxford colleges. During his tour of the Bodleian Library, the Ambassador was shown the Shakespeare 1st folio, as well as rare Korean treasures. For more information about collaboration between Korea and the University, please visit:

http://www.ox.ac.uk/international/oxford_around_the_globe/asia_east/korea_.html

There have been also other events throughout the year, notably the Festival Owon (Festival of Korean Music, Art and Culture in Oxford) presented by the North Wall Arts Centre over three days 2-4 July at three venues: Ashmolean Museum, University of Oxford, The North Wall Arts Centre, and Jacqueline du Pre Hall, St Hilda's College. People in Oxford were able to enjoy Korean music, tea ceremonies, calligraphy, and ceramics presented by well-known Korean artists.



Poster of Festival Owon

The more important events for the Library included the visit on 29 August to the Bodleian Library by a group of nine Korean researchers and professors from the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y spent long hours examining the Korean materials in the Special Collection. Much was gained from their special knowledge regarding these materials. They were also interested in the digitising of the Korean Special Collection. The other important event was the arrival of 114 cartons of books (approximately 3000 volumes) on 16 November 2012 from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s part of the “Window on Korea” project. This is the largest donation of books so far given to Korean Studies at Oxford and will be housed in the Korean Studies Library recently

created with the sponsorship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Earlier this year, in March 2012, Dr. Jong-min Kim, former Senior Vice-President with the Samsung Advanced Institute of Technology, was appointed Professor of Electrical Engineering in the Department of Engineering Science.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http://www.eng.ox.ac.uk/public-relations/media/literature/Newsletter-2012-2013.pdf>

page 9.



The arrival of 114 cartons of books at the Bodleian Library from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Photo courtesy of Angela Arnold (Bodleian Library).

The number of students coming to Oxford University from Korea is also rising steadily over the years.

2011/12	144 (South Korea)
2010/11	134 (South Korea) + 4 (North Korea)
2009/10	132 (South Korea)
2008/9	125 (South Korea)
2007/8	111 (South Korea) + 6 (North Korea)
2006/7	95 (South Korea) + 12 (North Korea)

Provided by Press & Information Office University of Oxford

Over the past year, there have been big development in Korean Studies and resources and the presence of Korea in Oxford continues to be strong.

(Written by Minh Chung, Head of the Bodleian Chinese Studies Library and Korean Collections of the University of Oxford)



The 18th Window on Korea to open at the Daniel Cosío Villegas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opened the 18th Window on Korea on the 3rd floor of the Daniel Cosío Villegas Library of the college of Mexico (Director Micaela Chávez Villa) on December 4.

The Korean collection room will start providing services to users with some 800 materials, furniture and other equipment provided by the NLK. The NLK will deliver the Mexican university around 1,000 materials additionally from 2013 to 2017. This will be about 200 books per year.

The Window on Korea project, which began in 2007, is designed to assist major public libraries and universities around the world with the installment and operation of a Korean collection by providing Korea-related books and materials including videotapes and CDs as well as furniture and computers. The goal of this project is to promote the understanding of Korean history and culture and to serve as a channel for support for Korean studies. Currently, a total of 17 Window on Korea have been installed at major libra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seven national libraries in Thailand, Vietnam, Mongolia, Indonesia, Iran, Turkey, and Egypt and ten public and university libraries in the United States, Germany, Spain, and Belgium.

The opening ceremony held at 11 a.m. on December 4 at the 3rd floor of the Daniel Cosío Villegas Library with the presence of about 30 distinguished guests including Mr. Choi Jong-hak, Director General of the Planning and Training Department at the NLK, Mr. Hong Seong-hwa, Korean Ambassador to Mexico, Mr. Seo NamKyo, Director of the Korean Cultural Center in Mexico, and Dr. Micaela Chávez Villa, Director of the Daniel Cosío Villegas Library of the College of Mexico.

With the opening of the Window on Korea in Mexico, the NLK expects further strengthening of the cultural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along with the spread of Korean culture in the country. The installment of the Korean collection is also expected to lay a foundation for active exchanges between the two libraries.

해외 한국학도서관 동향 보고서

제 8 호 (2012년 12월)

2012년 12월 18일 인쇄

2012년 12월 20일 발행

발행처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반포동)

전화 : (02) 590-0797

팩스 : (02) 590-0502

인쇄 : 원화디앤피(Tel. 2266-4410)

Trends in Overseas

Korean Studies Libraries

Number 8 (December 2012)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Banpodaero 201, Seocho-gu,

Seoul, Korea

Tel : (02) 590-0797

Fax : (02) 590-0502

www.nl.go.kr
